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3년 11월 19일(주일) 제1466호



사진은 지난해 CGN 정기후원행사.

‘어디서나 모두에게 복음을’

11월 18~19일 국내 모든 캠퍼스 ‘CGN 정기후원 행사’
정기후원 약정서 작성, 전화, 홈페이지, 모바일 참여

CGN 정기후원 행사가 11월 18일(토)과 19일(일)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열린다. ‘CGN 후원, 어디서나 모두에게 복음을’ 주제로 열리는 CGN 정기후원 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예배에서 나눠주는 약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전화, CGN 웹사이트, 모바일로 참여하면 된다. 정기후원 약정서에서 ‘증액 후원’ 또는 ‘신규 후원’을 선택하고, 반드시 ‘개인정보이용동의란’에 체크해야

한다. 이날 CGN 임직원들은 예배에서 특송을 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고 성도들과 소통한다.

CGN 대표 이용경 장로는 “CGN은 오염된 콘텐츠가 범람하는 현 미디어 생태계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대안을 제시하는 매체”라며 “어디서나 모두에게 복음만 전하겠다는 CGN의 비전을 계속 응원하고 기도하며 후원해달라”고 당부했다.

CGN 정기후원 행사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방영한다. <보스한섭>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조셉보스가 ‘조셉보소와 함께하는 CGN 후원 콘서트’ 실황을 11월 17일 방영했다. 11월 18일 오후 9시에 재방영한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간증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24일(금) 오전 11시 방영되는 <에메이징 그레이스> ‘후원특집 찬양이 흐르는 선교보고회’ 편에 가수 범키, 덕천교회 최기수 목사가 출연한다. <어

메이징 그레이스> 출연 이후 변화와 근황 등을 알릴 예정이다. 애니메이션 큐티 <갯툰>에서는 정기후원 특집 프로그램 ‘미래에 살아남아 버린 갯툰팀에 관하여’ 편을 제작했다. AI가 모든 애니메이션을 그리는 100년 후 미래 세계를 배경으로 순수한 복음을 담은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갯툰팀’의 이야기를 담았다.

문의: 02-796-2243



<CGN 후원>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2024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 모집

차세대사역본부에서 11월 19일(일)까지 ‘2024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를 모집한다. 국내 11개 캠퍼스 약 350명, 사랑부 30명이 필요하다.

차세대 교사로 섬기기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나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 로비에 설치되는 안내 부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른 캠퍼스 차세대 교사 모집은 캠퍼스 일정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다. 노희태 목사(차세대사역본부장)는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와 사랑의 눈물로 동역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용기 내어 헌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년 신입 차세대 교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사사명교육’도 열린다. 12월 14일(목)부터 1월 4일(목)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새 청지기들이 세워진다. 오는 11월 25일(토) 오후 4시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권사·안수집사 임직예배’, 12월 2일(토) 오후 4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장로장립예배를 드린다.

권사·안수집사 임직예배에서는 권사 226명(명예권사 3명, 권사 223명), 안수집사 326명(남 134명, 여 192명)이 임직된다(11월 16일 기준). 임직대상자들은 임직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지각이나 불참하면 임직이 인정되지 않는다. 복장은 남자 검정색 정장(흰색 셔츠), 여자 검정색 또는 짙은색 바지 정장(자켓 필수)에 흰색 블라우스 또는 셔츠를 입어야 한다.

권사·안수집사 임직예배 당일 교회 주차장

은 3인 이상 동반 차량만 이용할 수 있고, 나머지 차량은 양재역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사랑홀 안내데스크에서 4시간 주차권을 지급한다. 셔틀버스도 운행한다(양재역-양재온누리교회 12:00~16:30, 17:30~19:00).

올해 온누리교회 장로장립후보 안수집사는 56명(예정)이다. 지난 3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이어진 장로사관학교를 수료하고, 노회에서 치른 장로 고시를 통과했다. 2023 장로사관학교에서 ‘온누리교회와 Acts29’, ‘바람직한 장로상’, ‘긍휼의 영상’, ‘사회선교’, ‘온누리 양육체계’, ‘온누리선교’ 등을 주제로 훈련받으며 온누리교회 장로로서의 소명과 역량을 키웠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하나님 나라 청지기 세워진다!

임직예배 11월 25일, 장로장립예배 12월 2일

온누리 공동체 하반기 종강예배

2023년 온누리공동체 하반기 종강예배를 드린다. 11월 18일(토) 신용산공동체를 시작으로 12월 10일(주일) 평택 공동체연합까지 공동체별로 일정에 따라 종강예배를 드린다(11면 표 참조). 올해 하반기 온누리공동체는 7-8월 여름 아웃리치, 9월 3일~10월 8일 사르밧프로젝트, 10월 11~12일 러브소나타 미야기 등을 개최했다. 11월 25일 권사·안수집사 임직예배, 12월 2일 장로장립식, 12월 11일부터 1월 19일까지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도 이어진다.

공동의회

일시: 11월 19일(일) 3부 예배 후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
대상: 18세 이상 세례 교인
안건: 임직자 후보 투표

Q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길
진리
생명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오늘 본문은 야곱이 삶의 위기 속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건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부모의 장막 아래, 특히 어머니의 보호 아래 안락함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깊은 밤 광야에서 홀로 외롭게 누워있는 애처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전에는 조상을 통해 하나님에 관해 들어서 아는 신앙이었지만, 이제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여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견문을 넓히려려고 하는 여행이 아니라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 어쩔 수 없어서 떠나는 도피 여행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까지 가로챘지만, 그는 가족과 이별한 도망자 신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인생에서 처음 겪는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 낙망할 때, 인생의 가장 힘든 기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800km입니다. 혼자 여행하기 매우 먼 거리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 들어온 바로 그 길입니다. 그 길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약 2~3일 거리, 100km 정도 지나왔을 때 어느 날 밤 지친 몸으로 차가운 돌을 베개 삼아 잠 들었습니다. 그때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이 깨어있을 때가 아니라 자고 있을 때 찾아오셨을까요? 깨어있을 때 야곱은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욕심과 속임수로 형과 아버지를 속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야마는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는 야곱이 깨어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아가 강한 사람이라도 자고 있을 때는 철저하게 수동적이 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도 전혀 새로운 외부의 세계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꿈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꿈을 자신의 과거의 일이나 이루지 못한 욕구들, 무의식이 표출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꿈의 또 다른 차원을 말합니다.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는 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고, 미래의 일을 보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놀랍고 충격적인 일들을 예언하실 때 꿈을 통해 가르쳐 주시곤 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에게도 꿈을 통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여 주셨고,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꿈을 통해 메시아의 출생을 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브

라함과 이삭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셨지만, 야곱에게는 직접 임재하신 경험 없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 어머니의 보호가 더 크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보호막이 거뒤틀리고 홀로 걸어가는 인생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보호자가 되실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과 땅 연결하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

야곱의 꿈속에서의 체험은 두 가지 요소로 나타납니다.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을 보면, 야곱이 꿈에서 본 모습에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있었고,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습니다(요 1:51). 하나님이 사닥다리 위에 계셨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 사이에 거대한 간격이 있다는 것과 이 간격을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며 하늘과 땅을 서로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만으로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신약에서 야곱이 꿈에 본 이 장면의 의미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사닥다리 위에서가 아니라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한다고 하셨습니다(요 1:51). 예수님은 야곱이 본 이 장면 속에 자신을 대입하셨고, 예수님이 곧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라고 해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기 위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사닥다리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본 사닥다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셨지만, 예수님은 사닥다리 맨 위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땅으로 내려오셔서 사닥다리 가장 아래에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늘 위에서 “올라오라. 하늘까지 올라오라”고 부르셨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문학 작품이나 수도사들이 천국에 이르는 계단을 하나씩 하나씩 오르는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구원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벨탑의 원리입니다. 바벨탑은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에까지 닿으려는 노력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땅에서 하늘까지 닿으려는 시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 주신 사닥다리이며, 그 사닥다리를 타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믿음

이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다리를 타고 오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사닥다리 가장 밑에서 만나서 그분과 함께 오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시 와서 너희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사닥다리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야곱의 첫 번째 예배 경험

〈창세기〉 28장 13~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조건 없이 동일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가나안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죄를 짓고 도망하는 상황,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지 않은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과 자손의 약속,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모든 약속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추가해 주셨습니다. 훗날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며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벰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과 함께 야곱이 꿈에서 깨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꿈에서 주어졌지만, 야곱은 꿈에서 깨어나 하나님께 응답하는 장면이 일어납니다. 꿈에서 주어진 계시지만, 꿈에서 깨어났을 때 하나님께 응답하게 된 것이 예배입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자리는 평안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광야요, 차가운 바위 위요, 두려움이 엄습한 곳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 달아나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예배의 경험이 하나님을 대면한 이후 우리에게 나타나는 체험입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곳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16~17절).



“인생에서 뜻하지 않은 위기에 처해 있을 때가 하나님이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기회임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야곱은 그곳을 ‘벤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하늘의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 하나님의 집은 멋진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홀로 있는 외로운 광야요, 바위 위였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황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야곱에게 세 가지 깨달음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어느 곳이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누워 자고 있던 그곳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이 어찌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어떤 일정한 장소, 아브라함과 이삭이 예배한 자리에만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내가 몰랐구나! 야곱의 깨달음을 보고 ‘당연한 것을 왜 몰랐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에도 하나님을 어떤 장소에 제한하려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당에 오는 것입니까? 이 말은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만 계신다는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면 틀리고, 어느 곳이나 계시지만 특별히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당에 모였다고 하면 맞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고,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내가 일하는 일터, 가정 등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임재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야곱처럼 ‘내가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 속에서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며 지옥에 잠자리를 마련해도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 끝에 내려앉더라도 어디에서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드시실 것입니다”(시 139:7~10).

내가 어디로 가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

습니까? 내가 주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저 하늘 끝, 바다 끝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아주 가까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

둘째,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함께 베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광야를 함께 걸으셨습니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병원에 함께 입원해 계십니다. 야곱의 첫 번째 깨달음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깨달음은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싶어합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마음의 특징이 웬지 교회도 멀리하고 싶어집니다. 물론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상처를 입고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멀리한다든지, 때로는 목회자를 괜히 멀리합니다. 목회자만 하나님과 가깝다는 게 아니라 목회자를 보면 반갑고 정겹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데, 웬지 피하고 싶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공동체 성도들을 피하고 싶다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쩌면 공동체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은 마음 일지 모릅니다.

1930년대 나와서 오랫동안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는 메리 스티븐슨(Mary Stevenson)이라는 분의 ‘모래 위의 발자국(Footprints in the Sand)’이라는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이며 비췄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나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어떤 때는 두 쌍의 발자국이 있었고, 또 다른 어떤 때는 한 쌍의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바로 나의 인생에서 가장 비통하고, 슬프고, 실패한 시기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나를 괴롭히고 마

음에 걸려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제가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항상 저와 동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왜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주님께서 저를 위해 그곳에 계시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기간은 바로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던 때이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를 업고 있다. 그래서 네가 지금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셋째,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야곱이 서원기도를 하며 자발적으로 작정한 것에 나옵니다.

“야곱이 서원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여정에 저를 지키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제가 제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 주신다면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20-22절).

야곱의 기도의 내용이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약속하신대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되고, 자신의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기도가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이라는 단어가 없었다면 얼마나 성숙한 기도였을까 싶습니다. 전체 문맥에서 보면 하나님과 흥정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만일’이라는 단어를 ‘하실 것이므로’라고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이므로 저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십일조는 고대사회에서 자신이 드리는 그 대상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야곱이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어떤 해석이든 하나님이 야곱의 서원을 받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자신의 조건을 만들어 붙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초로 고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체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삶의 방향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조정한 것입니다.

야곱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있는 바로 그곳을 예배의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자고 일어나 돌베개를 성전 기둥으로 변화시킵니다. 불편한 장소가 예배의 장소, 바위가 성소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드림의 삶, 나눔의 삶이 되었습니다. 야곱에게서 처음으로 드리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인생이 아닙니다. 움켜쥐는 야곱, 발꿈치를 잡는 인생이 아닙니다. 손을 펴는 자로서의 첫 번째 체험입니다. 위기 속에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바로 이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앞으로 어려움이 전혀 없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야곱은 여전히 힘겨운 여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여행의 의미가 바뀐 것입니다. 사람의 위협을 피해 도망가던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달음질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형제만을 두려워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망자의 여행에서 순례자의 여행이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뜻하지 않은 위기에 처해 있을 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기회임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와 더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류현모 교수의 기독교 세계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성 혁명 폭풍 이겨내는 성경적 문화 만들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이사야> 5장 강해설교를 엮은 책이 <진노 아래 놓인 민족>이다. 이 책은 이사야 시대 예루살렘과 우리 시대가 물질주의에 빠져서 도덕적 타락에 해매는 것이 전혀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성경의 도덕적 기준은 절대적이며 변경되지 않았다. 이사야는 당시 유대인들이 그 기준을 자기가 지킬만한 수준으로 바꾸거나 없앴다가 결국에는 선과 악을 뒤집어 버리는 전도(轉倒) 단계까지 타락했다고 지적한다. 오늘날 성 윤리 기준도 이 단계에까지 이르렀음을 부정할 수 없다. 동성애를 정상이라 주장하고, 남녀 양성의 분명한 차이를 거부하면서 수십 종 이상의 자의적 젠더를 인정하고, 성소수자를 우대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 예다. 또 성적자기결정권을 내세우면서 성적 상대나 낙태 여부의 선택권을 인권으로 포장하면서 선악이 전도된 정도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성 혁명 폭풍우가 급속하고 강력하게 몰려오고 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분별하고, 통찰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고 굳게 뭉쳐 이 폭풍우를 돌파해야 한다. 성경적 문화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만들어져 각 가정의 부모를 통해 다음세대에 전달되어야 한다. 얼마 전 텔레비전에 BTS 멤버 '뷔'라는 청년이 나온 것을 보았다. 거기서 내 눈길을 끌었던 것은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가족밖에 없어!”라고 항상 말씀하시는 아버지로 인해 그 청년도 어느새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이것이 말의 힘이다.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곧 말씀의 능력이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문화를 계속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은 결혼의 제도 안에서 성-생명-가정이 통합되는 원리를 결코 변경하신 적이 없다.”

쉐마(신 6:6-9)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에게 강조한다. 먼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부모의 마음에 새긴 다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고 명령한다.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해 두라 말씀하신다. 자녀와 다음세대에 대한 신앙 교육과 전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폭풍우처럼 급히 밀려오는 성 혁명적 문화에서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말씀 선포와 그 말씀을 따르는 문화가 중요하다.

<시편> 127편에서는 자식을 ‘여호와가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칭한다. 또 전쟁터에 나선 전사의 화살에 비유하면서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고 말씀하신다. <시편>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얻는 복을 밥상에 둘러앉은 자식들과 그 자식의 자식을 보는 거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가지는 것이 복된 길임을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또 보여줘야 한다. 매일의 식탁에서 자녀들을 축복하며, 그들이 함께 있음으로 인해 얼마나 기쁜지,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늘 표현해서 그들이 부모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녀를 저주하거나 부정적인 표현을 지속하거나 자녀가 없는 것이 경력 관리나 경제적 유익이라는 표현을 삼가야 한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부모로부터 독립되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쳐서 둘이 온전한 하나가 되는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정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 명령하셨다(마 19:4-6).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가정을 통해 지속하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함과 동시에 그분이 내리신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우리와 자녀들에게, 주변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정이 행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의 씨앗을 끊임없이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며, 국가보다 훨씬 먼저 생겨났다. 나중에 생겨난 국가가 법을 통해 결혼 제도를 흔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인간이 결혼 제도를 무시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 즉 생육/문화명령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킬 수 없게 만들 것이고, 자녀의 탄생에 인위적인 방법(대리모, 인공 자궁, AI 유모, 로봇, 클론 등)을 동원하게 될 것이다. 결국, 혈연관계를 정의하기 힘들어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소개받을 수 없는 인간을 양산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혼 제도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며,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기본원리가 들어 있다. 이 원리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 결혼하지 않기로 서원한 사람이나 어떤 이유로 결혼하기 힘든 사람을 비방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말아야 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경우에도 정욕이 불같이 타서 음행하는 것보다 결혼을 선택하라 권고한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결혼의 제도 안에서 성-생명-가정이 통합되는 원리를 결코 변경하신 적이 없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한국 전통 세계관과 유신론 세계관

성태연 집사
(서초C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1906년 허버트 선교사는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에 있을 때는 유교인, 철학할 때에는 불교인, 어려움에 빠질 때에는 귀신 숭배자가 된다”고 했다. 이는 현재까지 유효하다. 우리는 태어나 자란 문화적 토양에서 자양분(세계관)을 흡수하고 성장해간다. 한국의 문화 토양은 샤머니즘, 유교, 불교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 이들은 문화 형태로 기독교인의 가치체계와 행동양식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무의식에서는 이미 몸과 마음에 익숙하게 자리 잡은 이전의 세계관을 통해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성경의 메시지와 문화를 혼합해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혼합주의’ 경향을 보인다.

2021년 한 조사에서 청년들의 교회 이탈 첫 요인이 목회 리더십의 ‘권위주의(사장 같은) 태도’로 나타났다. 한국 교회에 나타나는 권위주의는 유교의 수직적 서열 의식(장유유서)과 샤머니즘의 능력주의에 그 뿌리가 있다. 유교의 가부장적인 위계 의식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유교적 토양에서 성장한 기독교인은 위계와 질서, 신분과 직분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직분을 신분(감투)으로 생각한다. 샤머니즘적 권위주의가 능력 지향적이라면 유교적 권위주의는 권력 지향적이다. 모든 권위의 원천은 하나님이니(시 93:1), 인간의 권위는 위임받은 것으로 공동체의 유익과 양육, 세움을 목적으로 한다. 말씀의 권위에 대한 순종을 본인에 대한 것으로 혼동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교회에서 초면의 누군가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고, 소개하고 싶은지 자문해보면 좋겠다.

교회는 서로 섬김과 헌신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한 믿는 자들의 자발적 모임이다. 처한 곳에 남아서 헌신하고 섬겨야 할 이유가 이해되어야 하는 곳이다. 감투의식에 의해서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해서는 안 된다(마 18:6).

샤머니즘에는 초자연계와 인간계가 있는데, 샤먼(무당)은 초자연적 영역에 있는 악한 영들을 중재하는 자로 주술적 능력을 통해 사람들의 현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기복신앙의 중심에 있다. 이 영향으로 한국 기독교에 능력에 대한 숭배와 능력에 따른 성공주의가 뿌리내렸다. 이는 풍요를 골자로 한 현세 기복적인 샤머니즘 신앙의 연장선에 있으며, 동시에 유교의 입신양명 영향이기도 하다. 한국의 기독교인은 영적 중재자로서 샤먼의 역할을 목회자에게 그대로 투영한다. 샤머니즘의 특징은 진리보다 능력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능력이 나타나는 것보다 능력의 근원이 중요하다. 복음은 능력이 있지만, 능력이 곧 복음은 아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끼치는 샤머니즘의 해악이 크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면 능력을 쫓아다니는데, 능력이 나타나면 진리(복음)보다 능력 숭배로 인해 이단에 쉽게 빠지게 된다. 또 한 영적 은사(예언, 치유)를 가진 사람들을 지식의 말씀, 봉사, 섬김 등의 은사를 가진 사람보다 신령하게 여긴다. 그러나 성경적 의미에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과 사랑이 넘치는 예수를 닮은 이들이다. 기독교인은 권위주의와 성공주의에서 불신자와는 차별된 삶을 살아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모든 종교는 평안과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갈망을 드러낸다. 유교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인격 완성과 이상 왕국을 추구한다. 불교는 열반과 성불을 약속하며, 절대 자유, 절대 평안, 무 집착 등을 추구한다. 힌두교는 범아일여, 해탈을 약속하며, 우주와의 합일, 신과의 합일 등을 추구한다. 이슬람은 신에 대한 절대복종과 이상적 공동체(움마)를 추구한다. 샤머니즘은 현세적 축복과 능력을 추구한다. 이들의 추구 내용은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모두 누렸을 것들이다. 절대 평안과 절대 자유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죄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성경은 평안과 자유를 약속한다(요 8:32, 14:27). 신과의 친밀함을 원한다면 죄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요 1:1). 신에 대한 복종과 이상적 공동체를 원한다면 죄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현세적인 복과 능력을 원한다면 죄 문제부터 해결해야 현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잠 3:6).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CGN,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6개 해외 지사의 활약 그리고 열매

CGN은 한국 본사 외에 미국,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프랑스 등지에 6개 해외 지사를 두고 있다. CGN 해외 지사들은 현지 교단과 교회, 여러 기관과 협력하며 선교사들과 한인 디아스포라를 전방위적으로 섬기고 있다. 그 활약과 열매가 대단하다. 한국을 찾은 인도네시아와 일본 목회자에게 CGN이 왜 좋은 친구이고, 얼마나 큰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직접 들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CGN이 일본과 인도네시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고백하는 미야자키 사토시 목사(왼쪽)와 물리야디 술라에만 목사(오른쪽).

미야자키 사토시 목사(쇼아이그리스도교회)는 일본의 작은 도시 ‘미에현’에서 목회하고 있다. 그는 2006년 한국에서 신학공부를 하고, 일본으로 돌아가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기독교를 잘 이해하고 있다.

“일본 기독교는 자유주의 신앙 색깔이 강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가장 놀라워합니다. 반면 한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됐다’는 믿음이 확실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또 일본은 조용히 기도하는 문화가 있어서 교회에서 통성기도를 인도하면 성도들이 많이 어색해하고 어려워합니다.”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목회자가 없는 무목교회가 많다는 점도 특징이다. 바로 이점이 일본 교회에 왜 CGN이 필요하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일본에 약 8천 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2%가량인 960여 개 교회에 목회자가 없습니다. 이 현상은 소도시로 갈수록 심해 집니다. 교단과 상관없이 이웃 교회의 일주일 전 설교를 CD나 카세트테이프에 녹음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것마저 어려운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만 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CGN이 제공하는 양질의 예배 콘텐츠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실제 목회자가 있는 것 같은 효과가 있고, 의지도 되기 때문입니다.”

CGN은 무목교회 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있는 교회에도 큰 힘을 주고 있다. 양질의 콘텐츠를 활용한 양육 프로그램 덕분이다.

“일본에서는 기독교 세미나 영상 집회 등이 대도시에서만 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도시 목회자들이 참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시간 내기도 어렵고, 재정도 궁핍한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직업을 가진 목회자도 많아서 대도시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 그러나 일본 CGN 덕분에 기독교 세미나 영상 집회 등을 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지 모릅니다. CGN이 일본 소도시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정말 귀중한 영적 양식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일본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CGN의 콘텐츠는 무엇일까?

“일본은 기독교인의 수가 적고, 타인에게 삶을 잘 드러내지 않는 문화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CGN이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아,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저런 사역하는 분도 있구나’를 느끼며 도전을 받고, 크게 감동합니다.

다음세대를 위한 콘텐츠 중에서 일본어로 나오는 기독교 애니메이션 ‘갯돈’의 인기도 높습니다. 일본 교회와 교계에서는 다음세대를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는데, CGN 덕분에 일본 차세대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야자키 사토시 목사는 CGN이 그동안 일본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듯이 앞으로도 일본 교회와 크리스천의 좋은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고 거듭 부탁했다.

“CGN에는 좋은 콘텐츠가 정말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목회 현장에서 사용할지를 일본 교회와 교계가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일본 목회자들의 나이가 많은데, 여러 미디어를 활용한 예배와 주일학교 운영 등을 알려주는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목회자들이 대부분 외롭게 사역하면서 혼자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일본 교회에는 절대적인 은혜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최일선에서 감당하는 CGN을 축복합니다. 일본 교회와 교계가 다시 일어나도록 기도해주시지요.”

인도네시아에서 CGN의 역할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 인도네시아의 기독교인은 약 4천만 명이다. 여전히 무슬림의 압박이 끊이지 않지만, 기독교인이 점점 늘고 있다. 지난 2012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WEA(세계를 위한 기도)’ 이후 교회가 영적으로도 매우 성장하고 있다. K-POP이 인기를 끌면서 한국에 관한 관심도 높아졌다. CGN 인도네시아 지사에서 만드는 콘텐츠는 복음 전도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물리야디 술라에만 목사(GSPD 필라델피아교회)는 오순절교회연합회 대표(2013년)와 전국기도네트워크 자문위원(2021년) 등 기독교 리더로 47년째 섬기고 있다. 그 오랜 시간 섬기면서 CGN만큼 인도네시아 교회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미디어를 만나지 못했다.

“인도네시아 CGN과 현지 성서공회가 협력해서 제작한 ‘GEBADA(인도네시아 공동체성경읽기)’가 목회자들에게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CGN은 현지 교회와 소통 창구이자 성도들의 소그룹 모임을 복돋아 주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현재 121개 지역 교회 네트워크에 프로그램을 공유하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읽기 그룹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현재 213개 소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GN이 공동체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준 덕분에 성도들을 목양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CGN과 교회가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만들면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CGN은 현지 교회와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과 문화 전도를 시도하고 있다. “문화 전도가 인도네시아에서 매우 적합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man’이라는 쇼츠 콘텐츠로 말씀 구절을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로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성경적인 사업 멘토링을 해주는 ‘비즈유스(Bizyouth Business Mentoring)’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1년 전부터는 ‘즐거운 교회학교(Sekolah Minggu

Gembira)’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현지 교회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촬영이나 음향 기술을 알려주는 ‘미디어 아카데미’나 ‘드림온콘서트 인도네시아’ 행사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문화를 현지 성도들과 나누기도 하는데 반응이 뜨겁습니다.”

물리야디 목사는 CGN과 함께 동역할 뿐만 아니라 CGN의 후원자다.

“인도네시아 CGN이 성장하는 모습을 수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인도네시아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시간, 재정, 마음 등 열정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47년 동안 교계에 몸담고 있던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도전을 받고 2년 전부터 CGN 정기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물리야디 목사는 인도네시아 CGN의 자문위원으로 섬기면서 외부 협력뿐만 아니라 콘텐츠 방향 자문, 직원에 배설고 등도 돕고 있다. 그는 현지에 많은 기독교 방송국이 있지만, CGN처럼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형식의 콘텐츠를 만들어 내고, 현지 교회를 직접 찾아가는 열정을 보이는 경우가 드물다고 했다. 바로 이것이 인도네시아에서 CGN의 역할과 상징을 설명한다.

“인도네시아에서 CGN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CGN은 인도네시아의 3개 교단(PGI(교회연합), PGPI(오순절연합), PGLII(복음주의 연합)과 중립적인 관계를 맺고,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회와 교단, 여러 기관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사역을 나누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협력을 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CGN이 ‘어디서나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구슬땀 흘리고 있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눈높이에 맞춘 미디어 전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전하는 CGN의 도전이 계속될 것이다. 전 세계 곳곳에 CGN 해외 지사가 세워질 때까지 미디어 선교에 함께 동참하자!

“행복한 가정 만들어드립니다!”

만남부터 결혼, 출산 및 자녀양육, 건강한 가정까지

살면서 누구나 하는 고민이 있다. 연애와 결혼, 출산과 자녀양육,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준비를 하고, 출산과 자녀양육,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일을 배우고 실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온누리교회에는 이 모든 인생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는 프로그램이 있다. 크리스천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자녀 양육을 돕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일까지 도와준다.

/ 김다예 기자 daa2@onnuri.org

1인 가구, 비혼 가족 등 이 시대 가족 형태가 달라지고 있다. 또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인식한다. 물론 크리스천 청년들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한국리서치’에서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자녀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자녀가 있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기독교인 82%, 무종교인 6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무종교인보다 기독교인이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17%나 높았다. 온누리교회 대학부 529명을 대상으로 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428명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크리스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크리스천들의 연애와 결혼을 돕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책이다. 〈연애 신학〉, 〈누나, 내가 결혼을 해보니까 말이야〉 등 크리스천의 연애와 결혼을 돕는 책이 많다. 그 외에 기독교 소개팅 어플 ‘크리스천 메이트’, 유튜브 채널 ‘크만추(크리스천 만남 추구)’, ‘헵시바’, ‘교회언니 유미’ 등이 있다.

하나님 안에서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결혼준비하기

온누리교회에서 운영하는 크리스천 청년들의 연애와 결혼을 돕는 프로그램이 있다. ‘청춘 클래스’와 ‘크리스천을 위한 결혼문화세미나(이하 결혼문화세미나)’가 바로 그것이다.

‘청춘 클래스’는 크리스천 미혼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연애하고, 결혼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연애와 결혼에 대한 유익한 강의를 하고, 자연스럽게 이성을 만나도록 돕는다.

‘결혼문화세미나’도 크리스천 청년들의 연애와 결혼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이다. ‘코로나 19 이후 새 시대의 크리스천 결혼 문화’, ‘40대 기독교 청년을 위한 결혼문화세미나(지중해. 지금이 중요해)’ 등 매년 다른 주제로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지난 11월 4일(토)에는 만 29세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크리스천 Z세대를



온누리교회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도록 돕는 양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크리스천 Z세대를 위한 결혼문화세미나(Love Dive)’ (위), ‘헬로맘 스쿨’ (아래).

위한 결혼문화세미나(Love Dive)’가 열렸다. 온누리교회 청년 및 타 교회 청년들도 참석했다. 결혼문화세미나를 찾는 청년들이 하나같이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사람이 없고, 이성을 만나는 게 어렵다”고 털어놨다.

이예림 자매(대전 오메가교회)는 “연애와 결혼에 관심이 많아서 좋은 프로그램을 찾다가 결혼문화세미나를 알게 됐다”면서 “결혼문화세미나에서 배우자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웠다”고 고백했다.

온누리교회 풀무원동체에서 만나 결혼까지 한 선배들의 실제 연애 경험담을 듣는 토크쇼도 이어졌다. 결혼문화세미나에는 연애 중인 형제자매들도 참석했다.

김노아 형제(허브대학부)는 “결혼 이후 어떻게 성장하는지, 어떤 자세로 결혼에 임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참석했다”면서 “연애와 결혼을 준비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준비된 결혼이 아름답다’ 예비부부와 신혼부부 위한 프로그램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결혼예비학교’가 바로 그것이다. ‘준비된 결혼이 아름답다’를 주제로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들에게 꼭 필요한 강의가 이어진다. 결혼예비학교의 목적은 ‘결혼식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준비하도록 돕는 것’이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하나님 안

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일이 그리 쉽지 않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교제하면서 완전한 사랑의 결합을 경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가정의 방향과 기준을 세우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순결한 가정을 이룰 것을 결단하고, 성결서약도 필요하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다.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 행복한 부부 만들기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출산을 고민하게 된다. 온누리교회에는 임신부터 출산, 자녀 양육까지 돕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헬로맘 스쿨’, ‘어린이 부모 성장학교 하트스쿨’, ‘청소년 부모 성장학교 파워임팩트’ 등이다.

‘헬로맘 스쿨’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는 임신부, 초보 엄마들이 대상이다. 성경적 관점에서 임신과 출산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고, 아동 발달과 심리도 함께 살펴보고 부모 역할을 배운다. 출산 전에는 성경적인 태교와 관계회복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고, 출산 후에는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도록 돕는다. 가정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도록 돕는 사역이다.

‘어린이 부모 성장학교 하트스쿨’은 아이들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성장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레크리에이션, 음악, 미술 등을 활용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도록 돕는다. 초등학교와 그 부모가 대상이다.

‘청소년 부모 성장학교 파워임팩트’는 부모와 자녀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가정이 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사춘기 청소년들과 부모가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다. 자녀 양육을 잘 하기 위해서 우선해야 할 일이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이다. 온누리교회에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누리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있다.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젊은 부부학교’, ‘아름다운 동행’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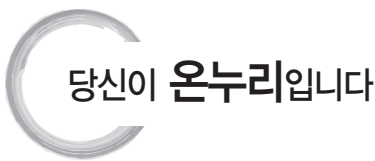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는 성경적으로 아름다운 가정의 모델을 제시하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정을 세우도록 돕는다. 결혼 10년 차이 상 중년 부부를 대상으로 가정의 갈등을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돕고, 부부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을 다시 누리도록 훈련한다.

‘젊은 부부학교’는 하나님 안에서 바른 가정을 세우도록 돕는 가정회복 훈련 프로그램이다. 결혼 10년 차 미만 젊은 부부가 대상이다. ‘부부대화’, ‘부부역할’, ‘자녀양육’ 등 결혼생활에 꼭 필요한 이론을 배우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돕는다.

‘아름다운 동행’은 부부 코칭 프로그램이다. 부부가 더욱 아름답게 동행하도록 돕는다. 교재와 소그룹 나눔에서 부부 코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부부 관계를 진단하고, 어려움을 나누면서 관계의 치유와 개선을 돕는다.

가정 및 회복 사역 스쿨 안내

스쿨	문의
청춘클래스	010-5628-8872
결혼문화세미나	010-5628-8872
결혼예비학교	02-2078-3263
헬로맘 스쿨	서빙고: 010-2716-2736, 양재: 010-5757-3427
어린이 부모 성장학교 하트스쿨	010-4528-0477
청소년 부모 성장학교 파워임팩트	02-793-9686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서빙고: 010-9049-3375, 양재: 010-4427-5025
젊은부부학교	010-9750-5907
아름다운 동행	010-2633-4808



“헌혈은 생명 그리고 사랑입니다!”

헌혈 외길 인생 ‘정길 집사’의 고백과 당부

‘1+1=2’ 이 등식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풀 수 있다. 이 등식을 정길 집사(강남A공동체)에게 대입하면 ‘헌혈=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에게 헌혈은 ‘1+1=2’라는 등식처럼 너무 당연하기 때문이다. 정길 집사는 30여 년 헌혈을 이어왔다. 헌혈의 유익을 크게 깨닫고 헌혈 외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 정길 집사는 헌혈 주기에 맞춰 개인 일정을 조정하고, 헌혈하기 위해 더 열심히 건강을 관리한다. 그의 입술에서는 “헌혈은 사랑입니다!”라는 아름다운 노래가 쉴 틈 없이 새어 나온다. 사람들이 왜 그를 ‘헌혈 전도사’라고 부르는지 알 수 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겨울이 시작됐다. 땀을 부는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만든다. 추위는 헌혈하는 사람들을 움츠리게 만들기도 한다. 매년 겨울만 되면 헌혈자가 평소보다 30%가량 줄어든다. 겨울마다 혈액 수급량에 빨간불이 켜지는 이유다. 올해도 어김없이 혈액 수급량에 빨간불이 켜질 조짐을 보인다. 11월 17일 기준 전체 혈액보유량이 4.9일이다. 적정 혈액보유량이 일 평균 5일분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마저도 B형의 혈액 수급(8.2일분)이 많아서 평균값이 올라간 것이다. 혈액 1일 소요량이 가장 많은 O형과 A형은 각각 3.4일분과 3.6일분밖에 되지 않는다. 관심 및 주의 단계에 이미 들어섰다. 많은 성도들이 헌혈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하는 이유다.

그는 알아주는 헌혈 전도사!

정길 집사(강남A공동체)는 혈액 수급량이 부족한 이맘때가 가장 바쁘다. 헌혈을 홍보하러 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정길 집사는 주위에서 알아주는 ‘헌혈 전도사’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서 임명한 ‘헌혈홍보위원’이기도 하다. 매일 같이 “헌혈하라”고 당부하는 정길 집사 덕분에 친구, 가족, 공동체 식구들이 헌혈을 시작했다. 김주홍 집사(강남A공동체)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정길 집사를 칭찬했다. “정길 집사님은 공동체에서 알아주는 ‘헌혈 전도사’입니다. 저도 정길 집사님 덕분에 헌혈을 시작했습니다. 연세가 많은데도 늘 헌혈을 실천하시고, 헌혈의 유익을 알려주셔서 안 하고는 못 배기겠더라고요. 정길 집사님만 보면 헌혈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정길 집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헌혈을 홍보한다. 헌혈의 집에서는 헌혈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헌혈의 필요성을 알려준다.

“어느 날 헌혈을 마치고 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헌혈하고 나서 몸 상태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헌혈하러 오긴 했는데 약간 겁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헌혈이 왜 꼭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한참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한테 잘못(?) 걸리신 거지요(웃음). 그래도 그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편안하게 헌혈하러 가셨습니다.”



헌혈로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정길 집사(강남A공동체).

정길 집사가 이토록 헌혈을 독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길 집사의 헌혈 사랑은 26년 전 시작됐다. 당시 정길 집사의 어머니에게 위내출혈이 생겼다. 큰 수술을 해야 하는데 혈액이 부족해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해드릴 게 하나도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어머니가 수혈을 받았다. 정길 집사의 어머니는 수혈 덕분에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어머니가 위내출혈로 쓰러졌을 때 다들 걱정이 많았습니다. 나이도 많으신 데다 위암 치료까지 받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도 일어나기 어렵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수혈을 받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때 헌혈해 주신 분들이 없었다면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생명을 나눠주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헌혈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길 집사는 헌혈에 목숨을 걸었다. 평생 한 번도 쉽지 않은 헌혈을 26년 동안 ‘205번’이나 했다. 헌혈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다. 헌혈 주기에 맞춰 개인 일정을 조정하고, 헌혈하기 위해 건강을 더 열심히 관리한다. 정길 집사의 인생에서 헌혈만큼 중요한 일이 또 없다. 그의 헌혈 외길 인생은 지

금도 진행 중이다.

“저는 헌혈을 우선순위에 두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골프를 정말 좋아하는데 골프 치자는 연락이 와도 헌혈할 때가 되면 거절할 정도입니다. 외국에서 생활하는 친구들이 놀러 오라고 연락하는데 그것도 미루고 있습니다. 외국에 갔다 오면 한 달 동안 헌혈을 못 하기 때문입니다. 겨울에는 외출도 삼가는 편입니다. 독감이라도 걸리면 헌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헌혈하기 위해서 건강관리를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가 헌혈하는 ‘진짜 이유’

헌혈이 참 좋은 일이지만, 주변 사람들의 만류도 많았다. 가족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정길 집사가 아내에게 20년 넘게 헌혈 사실을 숨기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정길 집사는 헌혈을 포기할 수 없다. 그가 꼭 헌혈해야 하는 진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헌혈은 예수님의 사랑을 갚는 정길 집사만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갚기 위해 섬김과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갚는데 헌혈만큼 좋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헌혈은 한 번 피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내 것을 나누는 일인데, 헌혈은 하고 나서 금세 다시 채워지니까 부담도 없습니다. 헌혈은 예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갚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정길 집사가 내년이면 70세가 된다. 나이 제한으로 마지막 헌혈을 앞두고 있다. 정길 집사가 헌혈과 함께 한 30여 년을 돌아보며 온누리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했다.

“저는 30년 가까이 헌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더 일찍 헌혈을 시작할걸’, ‘헌혈을 더 많이 할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몹시 큼니다. 그래서 더 빨리, 더 많이 헌혈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헌혈 전도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을 나눠주셨던 것처럼, 헌혈도 누군가에게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일입니다. 헌혈은 생명이자 사랑입니다. 꼭 기억하고 헌혈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헌혈 상식

Q. 헌혈하면 건강에 나쁘지 않나요?
A. 우리 몸에 있는 혈액량은 남자 체중의 8%, 여자 7% 정도입니다. 체중이 60kg인 남자의 혈액량은 약 4,800ml이고, 50kg인 여자는 3,500ml 정도입니다. 전체 혈액량의 15%는 비상시를 대비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헌혈 이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건강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신체 내·외부의 변화에 대한 조절 능력이 있으므로 헌혈 이후 1~2일 정도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혈액순환이 회복됩니다.

Q. 전에 헌혈에 실패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능할까요?
A. 부적격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라도 일정 기간 경과 후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헌혈 부적격 사유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항목이 낮은 혈색소 수치인데, 이 경우 철분 함량이 높은 식품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타 질병 또는 약 복용과 관련된 부적격은 사유별로 배제 기간이 다르므로 헌혈의 집이나 각 혈액원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 www.bloodinfo.net
* 혈액관리본부 CRM센터: 1600-3750(월~금 09:00~20:00, 토,일,공휴일 10:00~18:00)

맛있는 말씀 해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 하시고...”(마 8:26)

성경에서 믿음이란 인간의 행위를 의미하기 보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나타낸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바르게 고백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동의하는 것,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제자도를 설명하기 위해 믿음에 대해 말해주는 다양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나병환자를 치유하시는 장면(1~4절), 백부장의 믿음(5~13절), 베드로의 장모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심(14~17절)을 설명하고, 18~22절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치려야 할 대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의 믿음을 묘사하기 위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사용한 호칭이다. 마태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창조주이신 분을 묘사하기 위해 〈마태복음〉 8장을 기록하고 있는 듯하다. 이방인 백부장조차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정작 이스라엘과 율법학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선생

님 또는 랍비라고 부르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인정하고 있을까?

마태는 〈마태복음〉 8장 23~27절에서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앞에서 나온 이야기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함께 목격하고, 체험한 제자들의 믿음은 보통사람과 달라야 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갈릴리호수에서 탄로 났다. 갈릴리호수는 사면이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있기 때문에 광풍과 급격한 풍량이 자주 일어난다. 제자들과 배에 오르셨던 예수님은 여러 사역으로 지치시고 피곤하셨다. 배에 오르자마자 곧히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때 파도와 태풍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갑작스럽고 두려운 상황에 제자들이 두려워했다.

다른 복음서는 단순히 믿음이 없음을 꾸짖었다고 말하는데, 마태는 구체적으로 ‘믿음이 적은 것’이라고 말한다(막 4:35~41, 눅 8:22~25).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죽게 된 것

을 보지 않으시나이까’ 하고 불평하지만, 마태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간절한 기도제목으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큰 파도와 바람이 잔잔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놀라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마태는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주의 통치자가 되심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 적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위기의 순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머리와 입술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제자들은 위기상황에서 다른 행동을 보여 줘야 했다. 죽을 것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이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의미다.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은 원인을 그들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망각했었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배에 함께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앞장에서 나병환자를 치유하고,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고, 베드로의 장모와 병자들을 치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잊어버리고 있던 것이다.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위기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제자들을 꾸짖으신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자신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 자기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교훈하고 있다. 이것을 작은 믿음과 대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김상수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바른 선택

11월 20~26일
〈잠언〉 20:1~22:29,
〈스바냐〉 1:1~13



수 있다.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지혜가 어떠한지, 의인과 악인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묵상하자.

▶포도주와 독주에 미혹되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없다. 왕을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해하는 것이며, 다툼을 멀리하는 게 영광이 된다. 눈과 귀를 지으신 하나님은 한결 같지 않은 저울추를 미워하신다. 스스로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 젊은이의 영광은 그 힘에 있고, 노인의 아름다움은 백발에 있다. 사람의 행위가 정직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살피시고 판단하신다. 성도는 부지런히 공의를 행하며,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도와야 한다. 지혜로운 자는 정의와 절제를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언행을 삼간다. 승리의 주권자

묵상포인트 1: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사람의 길을 정하시는 분이시다. 이를 알 때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고, 겸손하며, 직접 원수 갚는 대신 하나님의 공의로 운 판단에 맡길 수 있다.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지혜가 어떠한지, 의인과 악인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묵상하자.

는 하나님이기기에 지혜나 명철, 어떤 모략으로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묵상포인트 2: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재물과 명예, 은금과 은총, 거만과 겸손, 게으름과 부지런함 중에서 무엇이 바른 선택인지 안다. 또한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이 맡겨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성도의 바른 선택에 대해 묵상하자.

▶많은 재물보다 명예와 은총을 택해야 한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피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분별하지 못해 해를 입는다.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아이는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지혜로운 성도는 멀리해야 할 사람과 가까이할 사람을 분별하며, 눈앞의 이익보다 선을 행하기를 택한다.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 악한 자를 탈취하지 않고, 곤고한 자를 압제하지 않으며,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않고, 울분을 품는 자와 동행하지 말아야 한다. 보증을 서지 말고,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 자기 일에 능숙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을 것이다.

묵상포인트 3: 〈스바냐〉의 핵심 주제는 ‘여호와와 날’이다. 하나님은 유다의 우상숭배와 영적 무감각에 진노하시며 ‘여호와와 날’을 선언하신다. 이날은 유다를 향한 심판의 날임과 동시에 회개를 촉구하는 날이다. 거짓 경

건과 영적 무감각을 흔들며 깨우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묵상하자.

▶유다 왕 요시아 때, 스바냐는 유다의 총체적인 부패와 변질을 드러내며 유다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선포한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것과 그분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한 모든 자를 진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불러 유다를 공격하게 하실 ‘여호와와 날’이 가까웠기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야 한다. 타락한 유다의 심판을 하나님이 철저히 준비하셨기에 그날에 포악과 거짓을 행한 자들의 집은 황폐해질 것이다.

- 묵상을 위한 가이드

▶술, 수면, 다툼, 험담 등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먹고 마시는 것, 입술의 말 등을 절제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자. ▶분한 마음으로 내가 직접 원수를 갚겠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공의로 운 판단에 맡기자.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신뢰하자.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재물과 명예, 은금과 은총, 거만과 겸손, 게으름과 부지런함 중에서 날마다 바른 선택을 하자. ▶내게 맡겨 주신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 더욱 훈련할 부분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날마다 점검하자. ▶신앙의 열정이 식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지 않은가? 무감각을 깨뜨리는 징계의 손길이 임하기 전에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 회복의 은혜를 구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어머니를 위해서!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어머니가 몇 년 전 신장 결석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이후 건강이 회복되시는 것 같았는데, 최근 다시 옆구리 통증이 있다고 하십니다.

부정맥 증상으로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부정맥 증상이 자주 나타나고,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 혼자 계셔서 더욱 걱정됩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저희 어머니는 학원을 운영하십니다. 몸이 아프신 데도 학원을 쉴 수 없어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학원 운영에도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어머니가 쉼을 얻고, 치료를 잘 받아서 건강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어머니가 다시 신장 수술을 해야 한다면 학원 운영에 지장 없이 수술을 받으록 기도해주십시오. 수술이 잘 되어서 신장에 증상이 사라지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부정맥 증상도 더이상 심해지지 않고, 치료를 잘 받으록 기도해주십시오.

어머니가 건강과 학원 일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어머니의 아픈 곳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치료해 주시도록, 어머니의 건강이 깨끗하게 회복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익명의 성도

기도제목 보내는 곳: daa2@onnuri.org

멘토가 멘티에게

청년의 때에 믿음을 지키는 방법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아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청년의 때에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유혹이 넘쳐나고,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한 세상에서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관과 정체성 혼란이 올 수 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겨우 살아내고 있는 청년들은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다. SNS나 방송을 보면 사람들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만 보이기 때문이다. ‘과연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가는 이 길이 옳은 길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목적의 이끄는 삶〉의 저자 릭 워렌은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지음을 받았으며 그 창조 목적에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속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 다니엘과 같이 정결하고 보배로운 주의 청년들이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세상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고, 우리 삶을 행동하게 이끄신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해주신다. 말씀은 우리 마음의 거울이다.

“세상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말씀이 우리 삶을 행동하게 이끄신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딤후 2:15).

청년의 때에 믿음을 잘 지키는 방법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꿈과 비전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하신 꿈과 비전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생각보다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응답하실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3).

둘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발견할 수 있고, 삶의 의미와 비전을 알게 된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과 비전이 예수 안에서 나의 사명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성령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풍조를 따를 것인가?’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된다. 신앙은 세상과 겹쳐져 적당

히 섬기거나 회색 지대가 없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교회에게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나를 택하라”고 하시면서 미지근하면 버리겠다고 하셨다(롬 8:5-8).

셋째, 불안한 청년의 때를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청년의 때는 도전과 실패의 연속이다. 고난을 겪는 청년들이 있다면,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란다. 욕, 다툼 등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면서 오직 그분만을 의지했으면 좋겠다. 내게 다가온 고난을 원망하지 말고, 오늘의 고난을 내일의 기쁨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잘 견뎌내는 영적 힘을 길러야 한다. 무엇보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울어 줄 멘토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안연환 멘토
(하늘대학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성경적 ‘떠남’의 세 가지 의미

〈창세기〉2장 24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부부가 하나 됨을 이루기 전에 우선 필요한 게 ‘떠남’이다. 부모로부터 건강하게 독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독립한 이후에 배우자와 한 몸을 이루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 성경적 떠남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분리됨’, ‘버림’, ‘느슨함’이다.

첫째,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가장 건강하게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떠나는 사람은 충분한 애착을 경험한 사람이다. 부모와 충분히 애착 되어 있고, 건강한 개인으로 성장한 다음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이성과 만나 결혼하는 것은 바람직한 떠남과 연합이다. 건강하지 못한 분리됨은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거나 갈등이 많은 상태에서 튕겨져 나가는 것이다. 이 사람은 부모와 분리되거나 단절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가정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수 있다. 간혹 결혼을 삶의 탈출구로 여기는 경우가 있다. 떠남을 잘 이룬 것 같지만 건강한 떠남과 분리라고 보기 어렵다.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리되어 떠났을 때 과거의 경험이 계속 삶과 결혼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어린 시절 자신과 부모의 관계에서 높은 담이 쌓인 채로 살았다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와 함

께 살면서 어떻게 사랑을 주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 몰라서 불편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결혼하고자 한다면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떠나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한다. 건강하게 떠남을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마음에 얽혀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충분히 자신을 통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부모와의 관계와 정서적, 정신적, 물질적인 면에서도 분리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부모도 독립해서 떠나는 자녀에게 미련없이 축복해야 한다.

둘째, 떠남의 의미는 ‘버림’이다. 익숙해 있던 삶에서 결혼이라는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물론 자신이 받았던 좋은 것은 유산으로 여기고, 수용하고, 발전시키는 게 필요하다. 좋은 것까지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다. 자신의 결혼 생활을 어렵게 하는 부정적인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왜곡된 인식, 표현하지 못하는 사랑, 막혀 있었던 대화 방식 등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독단적인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자신도 모르게 독단적인 성격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결혼생활에 유익하지 않은 습성과 문화, 습관들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버릴 수 있는 단호함이 필요하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다. 그러나 결혼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는 영역이다. 멋진 조각품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작가는 암석덩

어리나 큰 나무의 필요 없는 부분을 수도 없이 쪼개는 작업을 한다. 쪼개고 버리면서 더욱 멋진 작품이 만들어진다. 원가족의 영향으로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셋째, 떠남에서 중요한 의미는 ‘느슨함’이다. 원가족과 느슨한 관계를 갖는 게 떠남의 의미에 포함된다. 담을 쌓고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니다. 강하게 결속되었던 부모와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느슨하게 하라는 의미다. 원가족과는 느슨한 관계를 세워가고,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룬 배우자와는 더욱 단단한 결속을 맺어야 한다.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는 의미에는 자신과 타인의 경계선을 잘 세워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경계선이 필요하다. 가족 경계선에 관해서 자신도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방도 자신을 인정해 주는 관계를 적당한 거리가 있는 느슨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경계선 없이 살아왔던 관계라면 경계선을 세워가는 게 서로에게 속박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느슨한 관계다. 최소한 서로의 방에 들어가기 전 노크를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감정적으로 힘들 때 자녀에게 꾸밈을 털어놓는 부모가 있다. 부부 싸움 후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서 배우자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과 분노를 토해 놓기도 한다. 자신들은 회복할 힘이 없으니 자녀에게 쏟아놓는 것이다. 하지만

자녀는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부모를 떠나 이미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부모의 다툼 이후 결혼한 자녀에게 꾸밈과 하소연을 버릇처럼 하는 것은 떠남의 관점에서 보면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감정적인 어려움을 자녀에게 쏟아놓고 한바탕 울고 화내면서 자신의 마음은 안정을 찾을 수 있겠지만, 자녀에게는 결론 없는 우울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 부모를 떠나 결혼했지만 떠나지 못하고 계속 매어 있는 관계가 있다면 느슨해지는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 냉정할 수 있지만 자신의 문제는 우선 자신이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보는 것도 느슨해지기 위한 연습이다.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기 전에 ‘떠남’이 온전하게 이뤄져야 한다. 원가족에서 건강하게 분리되며 유익한 것은 영적 유산으로 받고, 부정적인 것은 버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느슨해지는 관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부모와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저자)

문화해설사가 들려주는 '기독교문화 유적지'

성령의 불로 시작된 '순천선교부'



임찬웅 집사
(남양주온누리교회,
문화해설사, <한국기독교
역사와 문화유산>
저자)

흥선대원군이 호남지방을 돌아다니고 나서 각 지역의 특징을 '호남팔불여(湖南八不如)'로 정리했다. 영광은 '호불여영광(戶不如靈光; 인구 많기로는 영광만한 곳이 없다)'이라고 평가했다. 순천은 '지불여순천(地不如順天; 기름지고 풍성한 땅 순천)'이라 했다. 그래서 그런지 매년 늦가을이면 겨울의 진객 철새가 순천만으로 찾아든다. 순천만을 찾는 철새는 매년 140여 종이나 된다. 흑두루미와 검은목두루미, 재두루미, 노랑부리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 민물도요, 큰고니, 흑부리오리 등 세계적으로 희귀한 새들이 이곳에서 월동한다. 어디 새뿐인가? 마땅히 볼 것 없는 겨울철에 사람들 또한 순천만으로 몰려든다. 순천만 갈대숲을 걷기 위해서다. 갈대숲은 철새와 사람을 불러 모으는 묘한 매력이 있는가 보다. 옛날에는 갈대를 베어다 땔감으로 쓰거나 밭을 만들고, 김 양식에 사용했다. 그러나 더는 갈대를 쓰지 않으면서 순천만에 갈대가 무성해졌다.

1900년대 초 광주선교부 오웬 선교사가 전라남도 일대를 순회하며 복음을 전했다. 너무 열심히 다닌 나머지 1909년 과로로 소천하고 말았다.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모습에 지치는 줄 몰랐던 것이다. 오웬 선교사가 다녔던 길을 유진 벨, 프레스톤 선교사가 순회했다. 오웬의 전도 결과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음을 확인하고 전남 남부지역을 책임질 선교부를 순천에 개설하기로 했다. 그렇게 1911년 순천선교부가 세워졌다.

안식년에 미국으로 돌아간 프레스톤 선교사가 교회를 순회하며 한국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진보를 증언했다. 그의 설교는 매우 감동적이어서 33명의 선교사가 선발되는 결과를 얻었다. 조지 왓츠라는 사람은 순천선교부에서 필요한 재정을 매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1913년 순천선교부는 독립했고, 왓츠는 매년 약속한 선교비를 보내왔다. 특별헌금도 수시로 봉헌해 순천선교부가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의 공적을 기념하기 위해 순천에 '조지왓츠기념관'도 건립했다. 순천에서는 사람이 계획한 다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 그래서 조지 톰슨 브라운은 '불세례로 문을 연 순천'이라 했다.

순천선교부를 가득 채운 선교사들이 속속 들어왔다. 의료선교사, 교육선교사, 여성사역

선교사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선교사들이 합류했다. 안력산병원(알렉산더병원), 매산학교, 교회 등이 세워져 순천 일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 안력산병원은 당시 서울 세브란스 다음으로 큰 병원이었다. 매산학교와 순천중앙교회는 순천지역 3.1운동을 주도해 민족 사랑을 실천했다. 이로 인해 순천일대 주민들이 교회에 대한 긍정적 시선을 갖게 되었다.

지금도 순천선교부 옛터에서 다양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매산중학교에는 순천선교부를 돌렸던 아름다운 토담이 남아 있다. 반갑기 그지없다. 매산 등에는 수백 년은 된 묵직한 고목, 싱그러운 상록수, 근대식 가옥, 토담이 어우러져 매우 아름답다. 매산 중·고등학교를 가운데 두고 담장을 따라 한 바퀴 돌면 순천선교부의 역사를 가늠할 수 있다. 도보 2~3시간이면 충분하다. 아래 순서대로 답사하면 편리하다.

‘순천시립기독교역사박물관 - 코릿가옥 - 매산여자고등학교(프레스톤 가옥, 로저스 가옥) - 선교사 차랑 - 여순학살지 - 매산중학교(매산관) - 선교부 토담 - 조지왓츠기념관, 선교기념비 - 순천중앙교회, 100주년기



'순천 기독교 선교역사 박물관'.

념종탑 - 매산고등학교 학도병 벽화 - 안력산병원 격리병동, 안력산병원터(매산고등학교 기숙사) - 한국형 구급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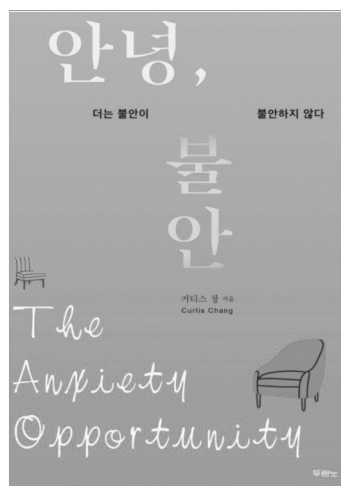
프레스톤 가옥, 로저스 가옥, 매산관은 학교 내에 있다. 방학이나 휴일에는 관람이 가능하다. 프레스톤 가옥, 매산관은 학교 정문에서도 잘 보인다.

찬바람 부는 겨울이다. 철새처럼 순천만으로 날아가 성령의 불로 시작된 순천선교부를 만나보자.

두란노 신간

오늘의 hymn(찬송가, 찬가)

“불안, 하나님 만나는 기회”



《안녕, 불안》

커티스 창 저 | 두란노 | 1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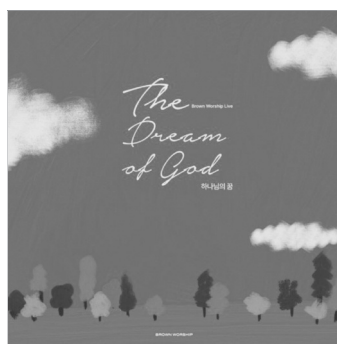
전염병, 전쟁, 자연재해, 기후 변화 등 시대적 사건을 비롯한 여러 요인으로 불안과 우울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늘고 있다. 불안과 우울감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을 위해 <안녕, 불안>이 출간됐다.

이 책의 저자 커티스 창은 불안한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권면한다. 불안한 마음을 숨기거나 괜장은 척하지 말고, 불안과 마주하면서 성경적 돌과구를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저자는 불안에 대한 성경적인 접근법을 탐구했다. 불안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불안마저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달았다. 저자는 “불안은 하나님 만나는 기회”라고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에 대한 인식을 바꿔준다.

책 <안녕, 불안>에는 불안 팬데믹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향한 저자의 성경적 컨설팅이 담겨있다. 성경적 돌과구를 찾아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 성도, 불안을 하나님 만나는 기회로 삼고 싶은 성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
브라운 위십 곡

누구나 마음속에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 그 꿈을 떠올리면 애뜻하기도 하고, 현실을 바라보며 움츠러들기도 한다.

브라운 위십의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라고 노래한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마음에 품고 계신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끄러 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찬양 ‘하나님의 꿈’에는 이론

게 없어도, 실패한 것 같아도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다.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 찬양을 듣다보면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 당장 무엇이 이뤄지지 않아도, 때로 실패를 경험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될 때, 이론 게 없다는 생각이 들 때 ‘내가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찬양 ‘하나님의 꿈’은 QR 코드, 유튜브, 멜론, 지니 등 음악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다.



찬양 듣기

온누리와 함께하는
나부터 탄소중립!

‘직장 편’

일상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디일까? 직장인이라면 직장, 학생이라면 학교, 주부라면 집이다.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부터 탄소중립을 실천해 보자.

직장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부터 살펴보자. 환경부에 따르면, 직장인이 한 해 평균 사용하는 종이가 무려 3만7천장이다. 종이 사용량의 10%만 줄여도 탄소 배출을 200t이나 줄일 수 있다. 직장에서 종이 사용을 줄이는 방법이 많다. 양면 인쇄, 흑백 인쇄, 모아찍기 등의 기능을 활용하면 종이를 절약할 수 있다.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그린프린터’ (양면인쇄 및 흑백 인쇄를 유도하는 무료 프로그램)를 사용하면, 연간 3만3천장의 탄소를 절감할 수 있다.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것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이다. 전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잠시 자리를 비울 때 컴퓨터 절전 기능을 사용하면 된다.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그린터치’ (컴퓨터 소비 전력을 감소시켜 비용을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발생량 줄여주는 무료 프로그램)를 사용해도 좋다.

‘2023 엔젤트리’ 사연 모집

11월 24일까지 홈페이지 및 목회지원실

사회선교본부에서 ‘2023 엔젤트리’ 사연을 모집한다. 11월 24일(금)까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나 목회지원실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엔젤트리 사연은 11월 25일(토)부터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로비에 게시할 예정이다. 캠퍼스는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엔젤트리 대상자는 온누리교회 공동체, 직장, 이웃, 가족 중에서 선정하면 된다. ‘엔젤트리 사연 모집 신청서’에 이웃의 정확한 주소와 사연, 받고 싶은 선물과 연락처 등을 기록해서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의 이름, 소속공동체 및 다락방, 연락처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이웃에게 전달하고 싶은 선물은 5만 원



사진은 지난해 엔젤트리 사연을 읽고 있는 성도들.

이하(꽃, 음식, 현금 금지)여야 한다.
문의: 02-3215-3434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2023 차세대 독후감 대회’

12월 3일까지 제출

온누리교회 도서관에서 ‘2023 차세대 독후감 대회’를 개최한다. 12월 3일(일)까지 ‘창조’ 관련 도서나 <전로역정>을 읽고 독후감을 써서 온누리교회 도서관(서빙고온누리교회 신관 403호)에 제출하면 된다. 서빙고온누리교회를 제외한 캠퍼스 차세대는 우편으로 독후감을 보내도 된다.

참가대상은 온누리교회 차세대 꿈이 자라는땅(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소속 어린이이다. 독후감 분량은 200자 원고지로 유년부 3장 이상, 초등부 5장 이상, 소년부 7장 이상이다. 12월 17일 시상식이 열릴 예정이다. 문의: 02-3215-3110

서빙고 만남의 잔치

일시: 11월 19일 오후 5시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시온홀(선교관 B2)

가정사역	동대문중앙	심민영	이재정
윤혜림	김남응	윤상란	
이윤기	김혜인	이용주	이춘
최리라	손연옥	이진광	김현태
황희정	송 숙		박정희
강서	동작	신용산	중종로
김수지	송예근	문덕규	이승재
김지윤	임민순	문지영	임진수
	한민구	양천	
강촌	황유진	김보경	한강
김영구		우희용	강인숙
박혜선	마포	이금자	박영준
최장춘	김서영		조경호
	최하은	영등포구로	차문경
		박선숙	
고양은평	서대문	S브릿지	
선신애	유한승	김태연	
이미양	최원석	김태연	
		김기영	
관악금천	서빙고	박향순	남영우
원영훈	이 슬	석유나	손홍인
유정임	최승혁	이미선	전주영
이기욱			정재욱
차미옥	성동광진	이수	한화정
	구동현	김정환	
노원	김미선	김진경	
김장경	김인숙	서조은	
정수호	박유미	이상길	
홍수진			

‘부채탈출 119’ 참가자 선착순 모집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신청 및 이메일 제출

재정상담 및 법률상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재정 설계와 부채 해결을 돕는 ‘부채탈출 119’ 참가자를 모집한다. 온누리교회 성도나 온누리교회 성도가 추천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가계재정상담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다음 이메일(js003225@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10-8543-4645, 02-3215-3434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라!”

부천, ‘자녀를 위한 맞춤 전도집회’

지난 11월 11일(토) 부천온누리교회에서 ‘자녀를 위한 맞춤전도집회’가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라: 상속자’를 주제로 막 올랐다. 부모와 자녀, 스태프 등 200여 명(요청자 51명, 대상자 75명)이 참석했다.

자녀를 위한 맞춤전도집회는 찬양, 간증, 설교, 편지낭독, 세례모니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재욱 목사(부천온누리

교회 담당)가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라’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가수 박지현 집사, 개그맨 김기리 형제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강승헌 형제(양훈재 권사 자녀)는 “어머니와 오랜만에 교회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 즐거웠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교회에 대한 마음이 많이 바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NGO 더멋진세상, 인도네시아 취약 가정 주택 건축

NGO 더멋진세상이 인도네시아 깔리만탄 바뚜바닥마을의 취약 가정에게 주택을 지어줬다. 주택 건축은 마을 회의에서 취약 가정 한 가정을 선정하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시공에 동참했다.

바뚜바닥마을을 주택 건축 수혜자는 7인가구 라흐만 붕(44세) 가정이다. 천장

에서 물이 새고, 흙바닥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번 프로젝트 덕분에 안전한 주거 공간이 생겼다.

라흐만 붕은 “NGO 더멋진세상의 도움으로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마을이 발전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257기 결혼예비학교 개강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

257기 결혼예비학교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으로 개강한다. 예비부와 결혼 6년 미만의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수강신청은 두란노서원 홈페이지(duranno.com)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5만 원.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에 강의 영상이 업로드된다. PDF 파일로 교재가 제공된다(커피당 1권).

결혼예비학교는 크리스천 커플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부부로 세워지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문의: 02-2078-3263

온누리공동체 종강예배 일정

서빙고			
날 짜	공동체	장 소	시 간
11월 18일(토)	신용산	서울역 공간모아	17:00
11월 21일(화)	동대문중앙	두란노홀	18:00
11월 21일(화)	가정사역	한동홀	18:00
11월 21일(화)	특별한초대	시온홀	18:00
11월 23일(목)	서대문	두란노홀	18:00
11월 23일(목)	강촌	한동홀	18:00
11월 23일(목)	양천	비전홀	18:00
11월 24일(금)	관악금천	한동홀	18:00
11월 24일(금)	노원	비전홀	18:00
11월 24일(금)	영등포구로	시온홀	18:00
11월 24일(금)	일산파주	일산 비전센터	20:00
11월 26일(주일)	고양은평	예수인교회	17:00
11월 28일(화)	한강	두란노홀	18:00
11월 28일(화)	서빙고	한동홀	18:00
11월 28일(화)	마포	비전홀	18:00
11월 28일(화)	동작	시온홀	18:00
11월 29일(수)	북누리	북누리 비전센터	20:00
11월 30일(목)	강서	두란노홀	18:00
11월 30일(목)	이수	한동홀	18:00
12월 1일(금)	OCC	두란노홀	18:00
12월 1일(금)	이촌	시온홀	18:00
12월 1일(금)	광명	하안장로교회	19:00
12월 5일(화)	천양사역	두란노홀	18:00
12월 5일(화)	성북	시온홀	18:00
12월 7일(목)	성동광진	두란노홀	18:00
12월 7일(목)	여의도	한동홀	18:00
12월 8일(금)	중종로	두란노홀	18:00
12월 8일(금)	용산	한동홀	18:00
12월 9일(토)	김포	김포안디옥교회	15:00

양재			
날 짜	공동체	장 소	시 간
11월 23일(목)	과천의왕	화평홀	19:30
11월 23일(목)	양재A	온유홀	19:30
11월 25일(토)	송파B	드림홀	10:30
11월 26일(주일)	하모니	비전홀B	16:30
11월 28일(화)	서초A	온유홀	19:00
11월 28일(화)	분당A	드림홀	19:30
11월 30일(목)	서초B	화평홀	19:30
11월 30일(목)	서초C	드림홀	19:30
12월 1일(금)	강남E	화평홀	19:30
12월 1일(금)	서초D	온유홀	20:00
12월 1일(금)	Point5	드림홀	20:00
12월 3일(주일)	푸른누리	숙명여고 강당	15:30
12월 5일(화)	도곡	화평홀	19:30
12월 5일(화)	경기A	온유홀	19:30
12월 5일(화)	강남C	드림홀	19:00
12월 7일(목)	강남A	화평홀	20:00
12월 7일(목)	양재B	온유홀	19:30
12월 7일(목)	강남D	드림홀	20:00
12월 8일(금)	분당B	화평홀	20:00
12월 8일(금)	강남B	온유홀	19:30
12월 8일(금)	송파A	드림홀	19:30
방학없음	Bridge33+	-	-

캠퍼스			
11월 24일(금)	부천 믿음	203호, 204호(자동차백화점)	18:30
12월 1일(금)	부천 소망	비전홀	19:30
11월 26일(주일)	부천 사랑	기쁨홀	16:00
11월 26일(주일)	부천 화평	506호(자동차백화점)	16:00
11월 25일(토)	부천 화평	비전홀	11:00
11월 28일(화)	수원 서누리	본당	19:30
11월 30일(목)	수원 동누리	본당	19:30
12월 1일(금)	수원 남누리	비전홀	19:30
12월 1일(금)	수원 북누리	본당	19:30
11월 24일(금)	대전 동누리	비전홀	19:30
11월 24일(금)	대전 남누리	본당	19:30
12월 1일(금)	대전 서누리	본당	19:30
12월 1일(금)	대전 북누리	세종교육관	19:30
11월 29일(수)	남양주 연합	본당	19:30
12월 10일(주일)	평택 연합	본당 2층	14:00
12월 8일(금)	인천 동누리	기쁨홀	20:00
12월 8일(금)	인천 서누리	본당	20:00
11월 24일(금)	인천 남누리	소망홀	20:00
11월 24일(금)	인천 북누리	본당	20:00
11월 24일(금)	강동 연합	12층 본당	20:00
11월 26일(주일)	양지 연합	박모세홀	14:00



이웃 사랑 실천하는 공동체 한강공동체 베드로 다락방이 지난 11월 4일(토) ‘1다락방 1사역’ 일환으로 이촌동 부근 거리에서 쓰레기를 청소했다.

바로잡습니다

지난주 신문(11월 12일자) 13면에 ‘보안지역에 게시는 선교사에게는 한국에 있는 선교단체로 소포비와 함께 선물을 보냅니다’라는 문장이 삭제되어야 하기에 바로잡습니다.

■ 차세대 교사 간증



/ 강정희 교사(서빙고 초등2부)

내가 차세대들을 가르친 건 아주 오래전 일이었다. 막 대학생이 되었을 무렵 엄마와 이모를 도와서 차세대 교사로 섬겼다.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이 참 좋았다. 그런데 그 시간이 길지 못했다.

나는 대학생생활을 마치고 잠시 온누리교회를 떠났다. 그 이후 내 삶과 신앙이 평탄하지 못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였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고 지내다가 하용조 목사님 말씀이 듣고 싶어서 온누리교회로 돌아왔다. 그때까지만 해도 차세대 교사를 다시 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대학생 때 섬겼던 기억도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차세대 교사로 부르셨다.

순예배를 드릴 때마다, 만나는 교회 어른들마다 내게 차세대 교사로 섬길 것을 권유하셨다. 내 인생 문제만으로도 바쁘고 벅찬 시기라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올라왔다. 하나님이 계속 내 마음을 두드리셨다. 하나님께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행복했다. 그렇게 10년 전 나의 두 번째 차세대 교사 섬김이 시작됐다.

차세대 교사라면 모름지기 사랑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다. 그런데 나는 정반대였다. 사랑을 주기는커녕 받을지도 모르는 부정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적인 사람이었다. 그런데 차세대 교사를 하면서 내 삶이 180도 바뀌었다. 하나님은 동역하는 선생님들과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통해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를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다시 경험하게 하셨다. 나는 사랑받고, 받은 사랑을 다시 흘러보낼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아이들을 보면 참 신기하다. 고작 3~4학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고 있다. 그저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온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정말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이제 와 생각해보니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나를 가르치고 있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 같다. 나는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경륜을 배우고 경험하고 있다.

차세대 교사로의 부르심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 치여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자리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울림이 있는 성도라면 순종의 자리로 나오기를 권한다.

■ ‘Why Mission?’ 수료 간증



/ 현정순 선교사(양재A공동체)

내 나이 예순한 살. 평균 수명으로 치면 인생의 삼 분의 이를 이미 살았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남은 삼분의 일 정도 남았다. 하던 일에서 은퇴하고, 하나님 만나러 갈 준비를 할 시점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하나님 은혜로 웰빙(well-being) 했고, 이제 웰다잉(well-dying)에 앞서 웰피니싱(well-finishing)을 고민하던 중에 온누리선교학교 ‘Why Mission?’ 과정에 참여했다. 어떻게 남은 생을 하나님 앞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수강 신청했다.

양화진에서 한국 선교 역사를 배우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빛을 진 자인지 깨달았다. 화성M센터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도 해외 선교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나에게 도전이 되었던 것은 한철호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던 선교에 대한 정의였다. 나는 그동안 ‘선교란 이런 것이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선교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이가 되는 것이고, 나로서는 감히 오르지 못할 나무였다. 그러나 한철호 선교사님의 메시지가 나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

중요한 것은 목적!

었다.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그 영광을 본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쌍방향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그 영광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다. 존 파이퍼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한다. 선교가 목적이 아니고, 예배가 목적인데 그것은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제 나는 선교가 어렵고, 특별히 선택받은 자만이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선교적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한다. 온누리선교학교 ‘Why Mission?’ 과정 수료 이후 막연했던 생각이 정돈되고, 안개에 가려진 그림자들이 구체화되었다.

그동안 나는 방법에만 매달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목적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다. 선교 대상자가 누구든 그들과 더불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나는 이미 선교사다. 선교에 대한 부담이 사라졌고, 마음이 가벼워졌다. 장소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웰피니싱(well-finishing)의 첫걸음을 뗀다.

■ 서빙고 이웃사랑팀 간증



/ 이은정 성도(한강공동체, 서빙고 이웃사랑팀)

남편과 나는 5년째 서빙고온누리교회 이웃사랑팀 회계와 총무로 섬기고 있다. 팀장님 부부, 대외 총무님 부부도 우리와 함께 오랜 시간 섬겼다. 서로 눈빛만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는 사이가 되었다. 우리 팀 리더십은 신앙의 크고 작음을 떠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마 22:37-39)는 말씀을 진리로 깨닫고, 길거리로 나선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팀원들이 받은 은혜가 정말 많다. 몇 가지 나누면, 독거어르신들이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늘어난 게 가장 큰 은혜다. 또 봉사자들의 연령대가 젊어져서 산 꼭대기까지 침대를 이고지고 올라가 설치해 줄 수 있게 되었다. 장례비용이 없는 일본 성도의 장례를 치러드린 일도 기억에 남는다. 찾아오는 친척 하나 없는 분들의 집을 방문해서 청소하고, 함께 식사하는 섬김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올해 사르밧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다. ‘현금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얼마나 들어올까’, ‘쌀 한 포대 받는다고 좋아하실까’라는 인간적인 걱정이 있었는데, 한 치도 틀림없는 하나님이 현금을 풍족하고 많은 분들에게 나눌 수 있게 하셨다. 지방에서 다자녀를 입양해서 어렵게 목회하시는 목사님 가정, 오래전 교회에서 일하다가 투병 중인 간사님 등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도울 수 있었다. 그 간사님이 “저를 잊지 않고 보내주신 쌀 한 자루를 보시고 저희 어머니가 울고 계십니다. 저도 힘내서 일어날게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오셨다. 사실 몇 달째 교회 일 하느라 식탁에서도 휴대전화를 놓지 못하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툭툭거릴 때가 많았다. 그런데 그 간사님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닿았다.

이웃사랑팀에서 사역하면서 매일 우리를 사 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작은 도구가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웃사랑팀이 될 것을 약속한다.

■ 일.하.세. 아카데미 수료 간증



/ 윤선희 성도(인천온누리교회)

현대인에게 일하는 것은 노동(勞動)으로 인식되고, 고되고 힘든 것으로 간주된다. 직장생활에 지쳐갈 즈음 문득 ‘평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 답을 내리지 못했다. 그때 일.하.세. 아카데미 모집 광고를 보고 곧바로 신청했다.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을 배우면서 삶에서 선을 행하는 일이 예배의 본질이자 일의 본질을 알게 되었다. 많은 직업 중에 왜 이 일을 하려하셨는지 생각하게 됐다. 고등학생 때는 수능점수에 맞춰 대학에 진학하고, 대학생 때에는 스펙에 맞춰 취업문을 두드려 합격하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게 공식화된 요즘이다. 세상에 많고 많은 일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 맡기신 일은 무엇일까?

인정욕구가 강한 편인 나는 사람들의 인정과 자기만족으로 업무를 해왔다. 그게 내가 느낀 업무의 동력이고, 그것으로 내적 동기를 유발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지칠 때는 업무의 무의미함을 느끼고, 허무함을 맛보기도 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으로 생각하기보

착하고, 충성되게!

다 내 직업 혹은 업무로 인식했다. 그러나 일은 나보다 연약한 존재를 돌보라는 의미였다. 내 일이 이웃사랑의 수단이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도구임을 깨달았다.

이전에 생각했던 성공은 직장에서의 성공이고, 나를 표현하는 자기실현, 나의 성장이 우선되는 모습이였다.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며, 누군가에게 나를 증명하고자 끊임없이 애쓰는 모습이였다. 그렇게 얻은 인정으로 우쭐해지기도 하고, 내가 해낸 것 같은 착각도 했다. 일.하.세. 아카데미를 수강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지낸 게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다.

일터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위에 전하는 일꾼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사랑을 전하기 위한 도구임을 알게 되었다. 일하는 모두에게 존엄성이 부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애썼던 노력에서 해방됐다. 하나님이 나에게 “잘 하였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착하고, 충성되게 내게 주어진 업무를 행하겠다고 다짐한다.

장로칼럼

환경 보호와 창조 세계 돌보기!



정운오 장로
(동작공동체)

내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수십 년도 더 된 일이다. 당시 일본에서는 산업화로 인한 공해병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때였다. 그때는 환경 오염과 그로 인한 공해(公害) 문제에 무지했던 시절이었다. 카드 몫과 같은 중금속이 물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일본인들은 ‘이타이 이타이’ 병과 같은 이상한 공해병으로 고통당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뉴스를 접하면서 나는 어린 나이에도 겁이 났었다. 이후 나의 무의식 속에는 환경 오염의 심각성과 환경 보호의 필요성이 자리 잡았다.

2014년 온누리교회에 사회선교본부가 창설되면서 ‘생명과 환경팀’이 신설되었다. 그때만 해도 교회에서 왜 환경 보호를 이야기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이고 인류의 타락으로 파괴되어 고통당하고 있으므로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돌보는 일은 ‘선교’에 해당한다. 로잔 케이프타운 서약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사랑한다”는 선언이 나온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의미한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손수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 세계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실천하는 일이다. 즉, 인류의 불순종으로 깨어져 고통당하는 개인들과 사회가 선교의 대상이듯이, 인류의 죄로 동일하게 ‘신음하고 있는 피조물인’ 창조 세계(환경)도 선교의 대상이다. 환경 보호 활동을 통한 창조 세계 돌봄(creation care)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해야 할 의무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일이다.

감사하게도 요즘은 온누리교회 많은 성도가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으며, ‘생명과 환경팀’도 다양한 ‘환경선교’ 사역을 펼쳐왔다. 대표적인 것이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캠페인으로 교회 내 쓰레기와 잔반 줄이기,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사용 절제하기, 텀블러 휴대하기 등을 홍보하며, 환경 관련 영상을 제작해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그 결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온누리교회 쓰레기 배출량을 30% 절감할 수 있었다.

2022년부터 시작한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 캠페인도 ‘생명과 환경팀’의 주된 사역이다. 모든 성도와 공동체가 사순절 기간 생명존중과 환경 보호를 위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활동 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하였다. 이 캠페인에 많은 성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참 감사하다. 이 외에도 대중교통 이용하기, 그린 스테이션(거점형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 그린 아웃리치, 유기동물 단체 돕기 등 환경 보호와 생명존중을 촉진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교회에 새로운 사역을 제안하고 싶다. 차세대를 대상으로 ‘그린 캠페인’을 하는 것이다. 지금 세대의 환경 보호 실천은 다음세대가 살아갈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다음세대가 망가진 자연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이들이 환경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가 마시는 물이 어디서 오고, 사 용한 물은 버려져 어디로 가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아웃리치를 데려가고, 얼음이 녹으면 주변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는 간단한 과학실험을 통해 아이들에게 지구온난화를 실감나게 교육할 수도 있다. 자연과 거리가 먼 도시 아이들을 위해 교회 주변에 작은 텃밭을 마련하여 주말마다 ‘정원 가꾸기’를 해도 좋을 것이다. 씨앗을 뿌리고, 호미질도 해보고, 꽃과 열매가 맺히는 것을 관찰하며 자연과 친해진다면 아이들이 아름다운 환경의 소중함을 의식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권사칼럼

남편의 사추기에 응원의 갈채를!



한은경 권사
(두란노어머니교회)

인생에는 세 번의 어려운 시기가 있다. 사춘기, 사추기, 그리고 은퇴기다. 사춘기를 지나는 많은 청소년이 반항하고, 사추기를 지나는 중년들이 방황하며, 은퇴기를 지나는 노인들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다.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는 사추기일 것이다. 자신이 사추기를 지날 때 자녀들은 사춘기를 지나고, 부모들은 은퇴기를 지나 노년기에 접어들기 때문이다.

심리학자 칼 융(Carl Gustav Jung)은 중년기에 접어든 사람은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면서 심리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재조명하고, 자신의 삶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을 겪는다고 했다. 중년기가 되면 신체적 변화가 먼저 찾아온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고, 밥만 먹으면 졸음이 오고, 매사에 귀찮아지며, 부부의 성생활도 예전 같지 않아 마음이 위축된다. 회사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고, 업무량은 더욱 늘어나고,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 누르는 샌드위치 신세가 된다. 중심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변두리로 밀려나느냐의 처절한 생존 경쟁 속에서 과중한 책임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늘어난다. 가정에서는 질풍노도 사춘기를 지나는 자녀들과 잦은 충돌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심지어 왕따 당하는 기분까지 들기도 한다.

중년기에는 호르몬 변화에 따른 심리적 변화가 일어난다. 그동안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에 의해서 성취와 목표 중심으로 달려갔는데, 성별 교차 현상이 일어나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득 삶을 돌아보면서 가정에 소홀했던 것 같아 신경을 쓰게 되고,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같이 외출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 시기 아내는 그동안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아직도 날 사랑하나요?”, “내가 정말 당신의 아내 맞나요?” 등 수많은 애착 신호를 보냈지만, 이를 무시하거나 알아듣지 못하고 오직 일에만 열중한 남편에게 이미 마음을 닫아버린 상태다. 그래서 갑자기 집에 일찍 들어와서 참견하고 함께하지는 남편을 못 견디며 “제발 나 좀 내버려 두라”고 짜증을 내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아내들이여, 중년 남편들을 이해하기를 바란다. 왜 안 보던 드라마를 보며 눈물 흘리느냐고 타박하기보다 ‘이제 저 사람이 여성화되어 가는구나’라고 이해해 보자. 그러면 남편과 하나 되어 다정하게 TV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독한 경쟁과 투쟁 속에서 살아왔고, 일 중심으로 살아와서 친구가 없고, 외로워도 갈 곳이 없어서 외출하는 아내를 따라다니는 남편을 ‘젖은 낙엽’이라며 귀찮아하지 않기를 바란다. 다정한 친구가 되어줘야 한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동반자가 되어줄 사람은 남편 뿐이다. 남편의 사추기에 응원의 갈채를 보내는 다정하고 현숙한 아내가 되어주자.

사추기를 지나는 남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격려, 인정, 칭찬, 그리고 부부가 함께하는 성적 만족이다. 남편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줘야 한다. 그동안 중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와 연구가 너무 많아서 중년 남성들이 더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최근 학자들은 중년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고 있다. 관계 맺는 능력이 완숙해지고, 판단력도 정확해지고, 여러 면에서 전문적이고, 능숙해진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나와 한편인 내 남편이 진정 완숙한 남성이 되도록 돕는 게 아내의 역할이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묵묵히 곁에 사랑할 것이다.

신앙에세이

하나님 뜻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유세르게이 목사
(안산M센터)

안산M센터 러시아 공동체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고려인 가족이 있다. 교회 초창기부터 함께 한 가족이다. 김 블라다 집사, 남편 제냐 씨와 딸 카테리나, 아들 마크가 그 주인공이다.

내가 2014년 온누리 안산M센터 러시아 공동체에 부임했을 때 블라다 집사는 찬양팀을 섬기고 있었다. 러시아공동체 블라다 집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동행하고 계시는지를 나누고 싶다.

블라다 집사는 “삶에서 하나님 뜻보다 좋은 것은 없다”고 끊임없이 간증하고 있다. 블라다 집사의 가족은 인생의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

다. 큰딸 카테리나의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이다. 카테리나는 이미 체조를 여러 번 그만둔 상태였다. 큰돈을 들여 체조를 다시 시작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런데 그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막내 마크가 태어났을 때 블라다 집사의 가정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다. 재정문제로 카테리나가 체조를 그만두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2주 뒤 코치가 바뀌었다. 새로 온 코치가 카테리나에게 돌아와 달라고 부탁했다. 심지어 수업료를 절반만 받겠다면서 체조를 계속하도록 격려했다. 새 코치의 응원에 힘입어 카테리나는 체조를 이어갔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질병으로 다시 운동을 그만뒀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자 그 코치가 무려 1년 동안이나 카테리나를 무료로 가르쳤다. 스포츠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었다.

카테리나가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리듬체조 한국대표팀에 지원했다. 블라다 집사는 금식기도를 시작했다. 12명이 리듬체조 국가대표팀에 선발될 수 있는 2차 선발 기회를 얻는다. 하지만 카테리나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았다. 실망으로 가득 찬 블라다 집사가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렸지만,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 시간 넘게 경기장을 돌아다니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기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스스로 상상해 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신앙의 길을 잘못 선택했다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것이 실패하더라도 신앙을 지켜야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블라다 집사가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기운 없이 잠들었다. 다음날 아침 코치의 전화

를 받고 일어났다. 카테리나가 리듬체조 한국대표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이었다. 카테리나가 리듬체조 국가대표팀에 들어가게 되었고, 최고의 시설에서 2년 동안 훈련할 수 있었다. 장학금까지 받았다. 운동할 돈이 없었고,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다. 그들이 가진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신앙뿐이었다.

블라다는 그 일 이후 집사가 되었고, 주일학교장으로 섬기게 되었다. 카테리나는 매주 일요일마다 주일성수를 위해 충청도에서 안산까지 먼 길을 오고 있다. 블라다 집사는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과 더불어 더욱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꿈을 꾸고 있다.

블라다 집사의 간증을 들으면서 현실이 막막하게 느껴질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뜻보다 좋은 것은 없다.

서빙고 0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정성민 전도사(010-9496-705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박윤애 팀장(010-2771-007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101호 / 러시아어 주일 13:00 선교관 301호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호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B1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202 / 필리핀어 주일 14:00 B1 Onnuri Hall / 태국어 주일 14:00 4F Manna hall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301 / 중국(청장년) 주일 11:00 4F Manna hall, 다문화 꿈팡 주일 11:00 1F Startree Academy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305 / 다문화 예꿈 주일 11:00 B1 Dream Kids / 대학청년부 주일 12:30 305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협동조합 / 우즈베키스탄어 주일 14:00 304 / 아랍어 주일 12:00 2F Library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31-8048-9446)
캄보디아어 주일 11:00 703호 / 미얀마어 주일 11:00 706호 / 러시아어 주일 14:00 703호 / 몽골어 주일 19:00 706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토요주일 14:00 703호 / 다문화 꿈팡 주일 11:00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네팔어 주일 11:00 2센터 202호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1호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주일 13:30 4층 열방홀 / 몽골어 주일 11:00 2층 본당 / 파워웨이브 주일 11시 4층 열방홀 / 다문화 꿈팡 11:00 2층 차세대예배실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4호 / 힌디어 토요일 20:00 301호 / 네팔어 토요주일 20:00 304호 / 다문화 차세대 주일 13:00 306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를, 양재 온유홀
문의: 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안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2495-2319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교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1~4시 / 첫째·셋째 주일 오후 1시 30분~3시
장소: 서빙고 성가대실(지하 1층)
지휘: 최영은 성가사
문의: 010-8285-6435

온누리선교재단 재정팀 경력사원 채용
업무: 결산 및 예산관리
형태: 정규직 사원(주5일근무)
자격: 2년제 이상, 기업회계 경력 3년 이상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간증문
제출: honeyple63@onnuri.org
문의: 이성호 총무팀장(02-3215-3101)

한누리학사 탈북민 대학생 남자기숙사 입주자 모집
모집: 서울 소재 2년제 대학교 이상의 고등교육과정에서 재학하고 있는 학생 및 및 동일한 과정의 입학 예정자
인원: 남자 6명
문의: 010-7107-5270(한누리통합팀)

양재 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팡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팡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온유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렘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1부예배(사랑부)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비전홀B

문의: 이은일 목사(010-3646-7994)

2부예배(예수사랑부) 오전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중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방랜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CMN 시온팀 통역자 모집
모집: 차과 외
사역: 여름 해외 아웃리치 및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CMN 토보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두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이주민, 난민 의료지원)
분야: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다문화 가정의 차세대를 위한 기도자 모집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
장소: 양재 JDS홀
문의: 010-6422-8376

제이홀 세미나
일시: 11월 19일 주일 오후 5시 30분
장소: 강동 온누리교회
강사: 정재한(한국임양선교회 팀장)
주제: 크리스천 입양가정이 꼭 알아야 하는 자아의 심리화와 원조적 상처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천 032.322.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0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주일예배, 예꿈놀이학교,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경찬홀 /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대전 0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세종교육관 본당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 6:00 세종교육관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031.56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유홀 / 다문화예배 15:30 꿈팡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팡홀 / 초등부 11:30 2층 꿈팡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팡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양지 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J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벤젤라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고등부 11:30 막도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퍼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막도세홀/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7~8월)

새벽예배 월~금 6:00 시안홀

영종 032.752.7937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백향목홀(3층)

새벽예배 월~금 6:0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파워웨이브(중고등부) 9:00 / 꿈팡(유초등부) 11:30 언더우드홀(2층), 예꿈(유치부) 11:30 아벤젤라홀(2층)

수요여성예배 10:30 백향목홀(3층)

평택 0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2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25 본당 / 3부 14:05 본당

대학청년(주일) 16:00 본당

영어예배(주일) 14:10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13:30 301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인천 032.437.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본당

강동 02.475.9686

토요주일예배
11: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프라미스(본당), 프라미스U(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19:40 사랑홀

새벽예배 오전 6:20 본당

http://www.onnuri.org			
국내 온누리교회 ●			
이재훈 위임목사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불선교센터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8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65-9686-8(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새빌딩 2-5층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동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6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박철웅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영종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생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			
■미서부 ● 얼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6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6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상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박태영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 오클랜드 조준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송재호 목사 852-2506-0089 221-227 Austin Tower 22-26 Austin Avenue, Tsim Sha Tsui, KLN, HK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8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김철희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isinsaibasi Chuoiku Osaka, Japan ● 우에다			
하카미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 -CI NAKA - 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이길택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섬기는 분들

● 위임목사
이재훈

● 캠퍼스 담임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김승수
이준호 박철웅 도육환

● 부목사(전임)

김미향 강은수 강지영 권오환
권용갑 김혜영 김도윤 김미정
김상규 김선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걸 김승환 김영배 김요성
김용민 김용산 김용태 김윤식
김재석 김재호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용
김태완 김한국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지형 노혜태 럼문홍
문성재 박근범 박성애 박성은B
박성천 박전종 박형준 배행삼
백성우 백인규 변대섭 서경남
송석근 송영돈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원석 신현민 스티브차
송동주 안사무엘 양성진 양재경
이성일 오 민 오은규 유진아
유현목 윤매리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서진
이세열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재정 이정환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재원 전병천
전신의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한호 정현석
정형권 정희성 제지윤 조동욱
조병홍 조병호 조수환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용준
최재윤 최정현 최재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정희 하정훈
한희수 한충희 허희희 황종연

● 전도사(전임)

김은혜 김태광 민근홍 신대종
송예찬 오현교 유성하 이상욱
이진기 이호준 이형목 장지훈
정연상 조은광 주하늘 진선미
황유일

● 목사(준전임)

구혜미 조호영
●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이기복

● 부목사(파트)

가 나 강정모 김래위 김바울
김병철 김용산 김은하 김주영
김진숙 김종균 김종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뉴이엘은 新島露蘭
마주마루 박씨마 백승현 비 켈
서영철 생애마루 사가르 윌리엄
에릭 마이클 스톨츠 이강혁
이민영 아이라프 이은일 이은정
이진이 이진희 임해선 윤치연
제인랑 존페이즈 차제이미 최정현

● 전도사(파트)

강귀용 강하람 강현구 고우리
박사은 구길모 권대식 권예람
김기희 김기태 김디모데 김동규
김민숙 김만순 김반석A 김반석B
김영선 김영신 김예찬 김요셉
김의연 김지선 김진희 김태원
김하은 김한빛 김홍미 김혜은B
남 혜 민혜영 박미애 박세연
박 성 박성배 박성원 박성훈
박새미 박예슬 박용아 박유진
박은혜 박의려 방예린 백성주
서예찬 송유진 송선재 신기환
신주용 심은섭 안류택 윤조현
염경덕 오국현 오성광 오성민
우승민 우진실 유석현 유요한
이세열 이은민 이우람 이윤재
이재정 이정환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재원 전병천
전신의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한호 정현석
정형권 정희성 제지윤 조동욱
조병홍 조병호 조수환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용준
최재윤 최정현 최재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정희 하정훈
한희수 한충희 허희희 황종연

● 사역장로

강기석 강영재 강의선 강인지
강찬석 강철호 구재영 권득한
관영석 관용성 관용한 권철준
김경선 김경철 김관근 김관식
김광동 김광선 김기호 김남식

김남열 김명종 김명철 김상섭

김석인 김선래 김선택 김성복
김성순 김상인 김수광 김수익
김수웅 김승열 김영수 김 완
김원준 김원배 김윤식 김원득
김이곤 김인화 김장렬 김재욱
김중건 김중성 김중승 김주홍
김진국 김창호 김철수 김태평
김하중 김현철 김형식 나상권
노재한 노홍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중 문창호 문홍식 문헌구
박 공 박남인 백승운 백성송
박석복 박성근 박성호 박영태
박용국 박종현 박찬빈 박석진
배 문 백남인 백승운 백종현
백홍기 상병선 서성렬 서진봉
서찬교 성창섭 손한기 송만석
송영범 송영태 송유신 송인걸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영각
신우권 신현종 심상달 심재욱
심창구 심종민 안국영 안성영
안용태 안종인 안태환 양유식
양주연 양재주 임대천 오성연
우광범 원우현 유병진 유병훈
유완영 유재천 유 형 윤기홍
윤성열 유기준 윤영성 윤영오
유현덕 유현준 이기범 이진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남수 이동희 이두송 이만식
이무용 이삼기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용경 이용하
이우근 이웅대 이창로 이재경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한열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장 광 장양희
정형준 정구영 전장하 정강무
정대서 정돈영 정문규 정병균
정보원 정승봉 정영열 정용하
정재택 정영진 정학영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정수업 정진하
정파조 정희원 조창진 조희동
주수일 주영일 차승철 차준기
차준한 차정무 최도성 최득린
최 명 최순진 최진성 최창규
최장수 최종길 최희영 편무욱
한갑수 한규중 한덕중 함곡식
한양희 한종재 한형식 함기명
홍덕표 홍병식 홍종철 홍정표
황영욱 황용오 황의서 황재규

● 사무장로

강경국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신의 강은철 강창재 강태욱
고다이라 고영주 광병철 광진성
곽희준 권순형 권오섭 권오혁
금세종 김경돈 김경환 김광하
김광훈 김기섭 김기영 김도영
김동인 김두진 김민순 김명세
김명현 김명훈 김문갑 김민찬
김병순 김병욱 김상집 김상철
김선호 김성규 김성진 김성원
김성철 김성훈 김신원 김영관
김영순 김영옥 김영국 김영환
김영환A 김영환B 김영환C
김용호 김우호 김 원 김이준
김인선 김창열 김재일 김경민
김재홍 김준용 김준홍 김지현
김지홍 김창석 김철민 김철주
김해기 김성진 김성중 김형준
김형중 김하선 김하수 김호구
김희준 나광욱 나 영 나영욱
김정환A 김정환B 김정환C
남정진 남주연 남규명 남영찬
라성원 류기범 명영진 문상만
정광택 정병주 박구병 박규명
채수삼 최장길 황용식

이해달 이한규 이홍선 임 훈
임광순 임병수 임정열 임정원
임호열 임희창 장경문 장경진
장경식 장광열 장규환 장문석
장선철 장우진 장정열 장영수
전한배 정광열 정명호 정상기
정영규 정영진 정영주 정영택
정영환 정운섭 정운오 정원만
정응화 정일영 정재범 정진도
정대경 제무순 조대식 조대희
조병현 조성수 조성현 조성환
조진호 조창금 조재량 진종구
최민철 최창필 최상근 최석민
최성완 최용재 최주관 최하원
최현재 최형수 최호필 하주원
한복규 한성우 한왕석 한정혁
한충희 한필규 함일성 함정철
허 경 허광수 허복만 허영남
허영환 허필우 홍건진 홍성호
홍의택 홍충선 홍해남 홍병원
황상진 황성룡 황유일

● 명예장로

김중수 박동순 박찬구 이승규
이광만 이원로 이혁상 정옥룡
정광택 정병주 정성건 지성환
채수삼 최장길 황용식

● 협동장로

김승도 김갑선 김경훈 김 준
김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류수광 패트릭스 박자인
박형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정지석 주치수 최태화 최원호
최종훈 추교명 함지연 황재익

●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택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선아 김세일 김은혜 김경철
김정환 김지형 김혜정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용규 박정규 손창우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유선애 윤은희 윤지연 이미선
이민호 이병근 이병철 이수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임진수
조익현 전병근 전지영 정성미
채미현 최영원 최영은 최은석
최지선 최진아 최재영 최혜경
최훈희 홍용식

● 반주자

강영우 강영은 강예은 고은찬
강광리 강기아 김병성 김보라
김보름 김선경 김선혜 김성태
김수현 김영찬 김은경 김은실

●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 010-4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앙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I(학습 성격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인터넷 중독 상담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용),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월세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김은영 김은지 김인영 김정국
김지은 김지훈 김진수 김찬희
김현정 김형주 김효종 남궁진
남민우 남예셀 노성의 노소라
노은경 문예지 문희정 박선희
박아령 박요셉 박윤진 박지훈
박주영 배영근 송효민 박지훈
신은혜 심현보 안소라 안지연
안호진 안희준 오영우 오경진
엄주희 왕희준 유은혜 유재준
유종광 유지혜 윤정희 윤주순
윤진영 이 준 이강석 이슬기
이애리 이예나 이예은 이지영
이지혜 이혜진 임현우 장재우
장현호 정경미 정다혜 정우찬
정주희 정지은 정신우 조민지
조영태 천은진 최숙희 최영규
최은미 최지훈 최희정 홍서영
황지연 황지훈

● 명예장로

김중수 박동순 박찬구 이승규
이광만 이원로 이혁상 정옥룡
정광택 정병주 정성건 지성환
채수삼 최장길 황용식

● 협동장로

김승도 김갑선 김경훈 김 준
김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류수광 패트릭스 박자인
박형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정지석 주치수 최태화 최원호
최종훈 추교명 함지연 황재익

●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택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선아 김세일 김은혜 김경철
김정환 김지형 김혜정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용규 박정규 손창우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유선애 윤은희 윤지연 이미선
이민호 이병근 이병철 이수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임진수
조익현 전병근 전지영 정성미
채미현 최영원 최영은 최은석
최지선 최진아 최재영 최혜경
최훈희 홍용식

● 반주자

강영우 강영은 강예은 고은찬
강광리 강기아 김병성 김보라
김보름 김선경 김선혜 김성태
김수현 김영찬 김은경 김은실

●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 010-4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앙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I(학습 성격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인터넷 중독 상담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용),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월세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서재욱 설산정 송민선 안대진
안지현 원유미 이민혜 이성훈
이수연 이은희 이용기 이지영
임지훈 윤성민 윤성준 장성진
장세윤 장유미 정선진 정은숙
조 단 조민철 최정수 최진숙
조바야시 메구 하영진 하정훈
한현희 호산나 황나현 핸슨오
Amos Lee Christine Daniel
Kim David Ko Enoch Cho
Esther Choi Shin David Kim
Jeana Lee Jeff Yoo Jessica Yi
Joe Oh Sam Chung Rachel
Back Tommie Njobvu

● 사역장로

강희용 권덕수 김경덕 김수광
김수호 김현중 남 영 백남인
서인택 신종수 우승호 윤영오
이문호 이정기 임병욱 정길안
한덕중 홍규식

● 사무장로

강성규 고석환 권우중 권오환
김재동 김재우 김준영 남영근
박오택 성한재 손정표 신술문
여충필 유희민 이관표 이광철
이상현 이우성 이은창 이준상
장민용 정현주 조규배 조성민
조윤행 한상훈 허규희 홍관희
황용인 Henry Park Hyun Chang

● 명예장로

김용석 엄성국 윤부국

● 협동장로

강광일 김기홍 김도일 김명성
김상훈 김성원 김성진 김인숙
김영봉 김정은 김진우 김재형
김창식 김향선 남진숙 노경호
문성일 박대원 박종훈 박찬빈
박현욱 박효빈 배성우 변범섭
손 담 손미경 신기원 심재원
심형진 양진범 엄영기 우윤상
유명종 유영순 이경호 이미평
이성은 이서원 이승윤 이은택
이우영 이정우 이형근 장시영
장재홍 전상현 전홍진 정동윤
정용환 조수정 조정호 주지은
최철홍 허 민 홍동욱 홍세반
홍 정 Joel Kim Joe Lee
Michael Lee

● 전도사

강요한 고은아 강성효 강은주
김성현 김인혜 김정욱 김창식
마커스 문성희 박종구 박지혜

광고

온비아 로마서 서빙고 목요일 오전반
일시: 11월 23일~24년 1월 11일 매주 목 오전 10시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선교관 202호
마감: 11월 22일까지
신청: 아이스쿨
문의: 010-6221-1028

온비아 로마서 양재 월요일 오전반
일시: 11월 27일~24년 1월 22일 매주 월 오전 10시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비전홀
마감: 11월 26일까지
신청: 아이스쿨
문의: 010-6221-1028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김현준, 홍하영, 김다애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북)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간사(010-6209-3667)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중·석식 봉사자 모집(개인, 단체 가능)
일시: 중식(11:00-14:00), 석식(16:30-18:30)
문의: 서민정 사회복지사(02-3474-6080)
※점심식사 제공, 정기봉사자 우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봉사자 모집(단체, 개인 봉사자 가능)
일시: 평일 10:30-13:30 ※점심식사 제공, 시간조율 가능
문의: 김효정 사회복지사(070-4340-2509)

용산구립청파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및 정리
일시: 평일 10-13시(점심식사 제공)
문의: 문소연 사회복지사(070-4340-2542)

용산구립청파노인복지관 축탁의(유급 봉사자) 모집
대상: 의사면허 소지자
기간: 월 1회/ 회당 1시간(워킹 시간 1년)
장소: 용산구립청파노인복지관
내용: 복지관 어르신의 건강상담 및 물리치료 처방
문의: 조의진(02-703-6011)

재정

모바일현금으로 더욱 간편하게
현금하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현금 특징
- 이체 수수료 무료
- 모든 금융기관 이용 가능
*사용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의
모바일현금 캠페인을 참조하세요.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 010-4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앙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I(학습 성격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인터넷 중독 상담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용),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월세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소천

11/9(목) 양재B 최미경 성도 남편상 고 임흥규
11/10(금) 장애인사역본부 이상희 성도 부친상 고 김병재
11/11(토) 서초B 이재우 성도 부친상 고 이종담
11/11(토) 강남B 신윤옥 권사 모친상 고 성철환
11/12(주일) 용산 강현주 권사 모친상 고 김경자
11/13(월) 관악금천 고 한태섭 권사
11/13(월) 중종로 김재범 성도 부친상, 이수정 성도 시부상
고 김덕환
11/13(월) 신용산 이주는 집사 모친상 고 이두원
11/13(월) 신용산 허만호 선교사 빙모상 고 박종자
11/13(월) 하모니 정유정 성도 시모상 고 박월자
11/14(화) 경기A 이준석 성도 부친상 고 이원근
11/14(화) 갈렙 임영주 성도 부친상 고 임장기
11/14(화) 성동광진 고 문형남 장로
11/14(화) 동작 성해두 집사 모친상, 김태리 권사 시모상
고 김영자
11/15(수) 성북 이순혜 권사 부친상, 장영호 집사 빙부상
고 이순장
11/15(수) 천왕 김연주 성도 부친상 고 김광녕
11/15(수) 서초B 김상훈 성도 모친상 고 고일신
11/16(목) 강남C 이연실 성도 시모상 고 윤옥근
11/16(목) 고양은평 김철순 성도 모친상, 조경희 성도 시모상
고 송근숙
11/16(목) S브릿지 김대훈 성도 모친상 고 배외자
11/16(목) 서대문 손성희 성도 자녀상 고 임준형 성도

어디서나 힘이 되는 CGN

“

“중남미의 목회자들은 제대로 된 신학 교육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CGN과 함께 미디어를 통한 교육을 진행하며 좋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CGN을 통한 양질의 콘텐츠는 선교지의 사역자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 김선근 선교사 - 과테말라 (신학교, 청소년 사역)



“성경 통독을 시작하고,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십쇼’를
비롯한 CGN 콘텐츠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지역 MK들과
함께 공동체 성경읽기를 활용한 소그룹 모임을 하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 이시편 MK - 대만 (간호사, 타이베이 MK 모임 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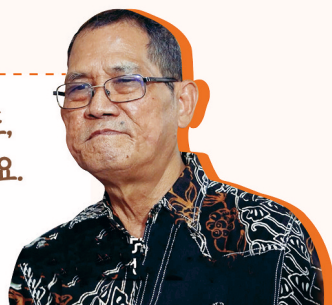
”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CGN

“

“성경에 모든 답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가끔씩 어려운 부분도,
궁금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때 CGN의 ‘바이블 스터디’를 보게 되었어요.
CGN 덕분에 성경을 읽을 때 막혀있던 것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 피엣 - CGN Indonesia 시청자



“저는 CGN Thai를 즐겨보면서, 매일 영적으로 채워짐을 느낍니다.
제 영혼의 단비 같은 CGN Thai가 아직 신앙이 없는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에, 후원에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 핏티 띠띠짚다 - CGN Thai 후원자

”

어디서나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CGN

“CGN과 미디어 선교사로 함께해 주세요.”

CGN 후원 [하나은행 573-910002-67804] (재)온누리선교재단 문의 02-796-2243



신규후원



증액후원

CGN 후원,
어디서나 모두에게 복음을!

